

2009 이슈분석 제1호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공선희(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목 차

1. 분석목적 및 방법	1
(1) 분석 목적.....	1
(2) 분석 자료 및 방법.....	1
2. 출산율 변동과 요인	2
(1) 합계출산율의 변화.....	2
(2) 결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3
3. 서울시 기혼남녀의 가족관	3
(1) 가족의 중요도.....	3
(2) 가족에 대한 태도.....	5
4. 서울시 기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의식	6
(1) 기혼남녀의 자녀관.....	6
(2)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8
(3)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9
(4) 월소득별 희망자녀수.....	11
(5) 기혼남녀의 출산계획.....	12
(6) 기혼남녀의 출산결정 요인.....	15
(7) 기혼남녀의 한자녀 혹은 무자녀 희망 이유.....	17
5. 서울시 기혼남녀의 성역할 분담에 관한 의식	19
(1) 부부 성역할 의식.....	19
(2) 맞벌이/홀벌이에 따른 가사분담 의식.....	23
(3) 기혼남녀의 가사분담 실태.....	25
(4) 기혼남녀가 선호하는 부부경제활동유형과 자녀수.....	27
6.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생활양립 실태	29
(1) 일가족양립에 대한 인식.....	29
(2) 기혼의 일상생활시간 분배.....	32
(3) 기혼남녀의 주당 근로시간.....	33
(4)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활용.....	35

7. 서울시 기혼남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수요	40
(1)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40
(2)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수요	41
8. 맺음말 : 정책함의	45

1. 분석목적 및 방법

(1) 분석 목적

-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1.19명으로서 2007년 1.25명보다 감소함.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30대 후반 여성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어 만산현상이 더욱 뚜렷해짐.
-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들 가운데 자녀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기혼여성 뿐 아니라 기혼집단 전체의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및 행위가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혼자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 다양화 할 수 있음

(2) 분석자료 및 방법

-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본 재단 정책개발실에서 2008년 실시한 서울시민 대상의 결혼 및 가족, 출산의식과 일가족양립 실태 관련 조사결과임. 총표본 2,500명 가운데 만 25~44세 성인남녀 기혼응답자 1,490명(여성 830명, 남성 660명)의 조사 결과를 SPSS통계 패키지로 분석함. 또한 필요할 경우 미혼응답자 1,010명(여성 407명, 남성 603명)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함¹⁾

조사 설계	
조사대상(모집단)	■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성인남녀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사기간	■ 2008년 7월 26일 ~ 8월 21일
표 본 수	■ 총 2,500명 (기혼 1490명, 미혼 1010명)
조사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96\%$
표본추출	■ 자치구, 성, 연령 및 결혼상태, 경제활동여부별 인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및 다단계층화 추출방식

1) 성·연령·직업·소득 등 주요변수에 따른 가족 및 출산의식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2008년 본 재단 연구보고서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참조할 것

2. 출산율 변동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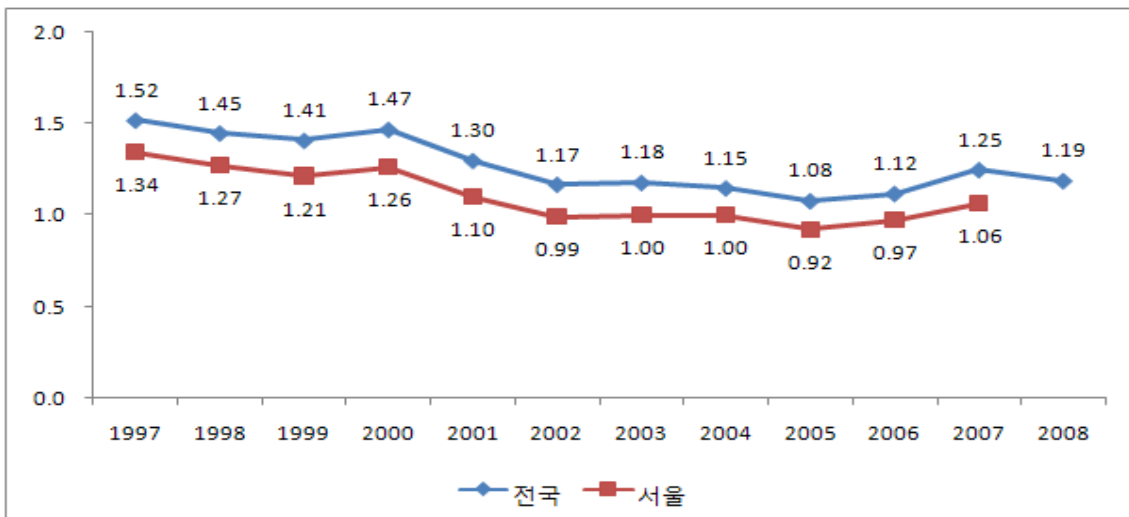
(1) 합계출산율의 변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어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함.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5~1.8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05년에는 1.08명의 최저수준을 나타내었고, 최근 2006년과 2007년에 1.12명, 1.25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잠정치)에 1.19명으로 다시 하락함. 이러한 출산율은 OECD 평균 출산율 1.63명(200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표 1> 출산 관련 지표

항목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생아 수(천명)	678.4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438.1	451.5	496.7	466.0
증 감(천명)	-17.4	-35.4	-26.7	20.5	-79.6	-62.6	-1.2	-17.4	-38.0	13.5	45.2	-30.7
증감률(%)	-2.5	-5.2	-4.2	3.3	-12.5	-11.2	-0.2	-3.5	-8.0	3.1	10.0	-6.2
1일 평균(명)	1,859	1,762	1,689	1,740	1,527	1,355	1,352	1,301	1,200	1,237	1,361	-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14.8	13.8	13.2	13.4	11.6	10.3	10.2	9.8	9.0	9.2	10.1	9.4
전국 합계출산율(명)	1.52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_e
서울 합계출산율(명)	1.34	1.27	1.21	1.26	1.10	0.99	1.00	1.00	0.92	0.97	1.06	-

주 1) 2008년 수치는 잠정통계치임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 서울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0.92명으로 부산(0.88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2006년 0.97명, 2007년 1.06명으로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임

2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2) 결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 저출산은 혼인연령의 상승(만혼)과 이에 따른 만산에 기인하는 바가 큼. 특히, 결혼과 출산이 밀접히 결합된 한국사회에서 혼인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2000~2005년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여성의 초혼연령은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20~29세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기인함
- 서울여성의 경우 평균 초혼연령이 29세(2007년)로서 전국평균(28.1세)보다 약 1세정도 많은 반면, 서울남성의 경우에는 전국(31.3세)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차이가 없음. 이러한 결혼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귀결되고 2006년 첫 자녀 출산연령은 평균 29.2세로 나타나 가임기간이 축소되는 경향임

<표 2> 평균 초혼연령 및 첫자녀 출산연령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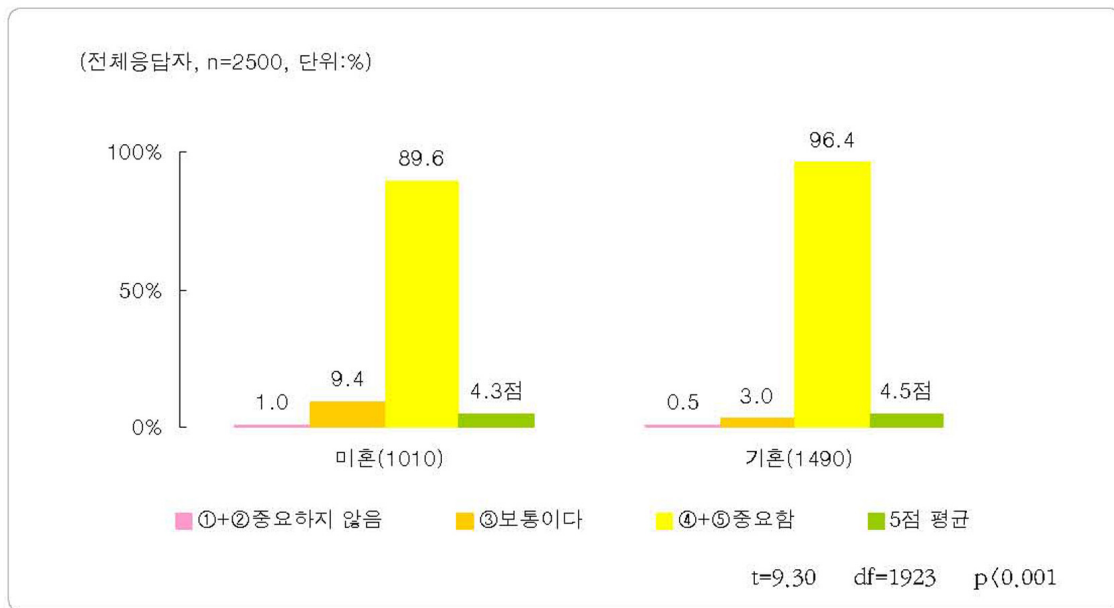
구분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초혼 연령	여자(전국)	25.5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여자(서울)	26.1	27.3	27.5	27.8	28.0	28.3	28.6	28.7	29.0
	남자(전국)	28.4	29.3	29.6	29.8	30.1	30.6	30.9	30.9	31.3
	남자(서울)	28.7	29.7	29.9	30.1	30.5	30.9	31.2	31.2	31.5
평균 첫자녀 출산연령		26.7	27.7	28.0	28.3	28.6	28.9	29.1	29.2	-

- 출산율의 변화는 가족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거시적 사회변동의 효과로서, 일반적인 출산율 하락은 많은 사회들의 공통적 특성으로 나타남. 또한 OECD 주요국가들의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은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e) 혹은 일생활조화(work-life balance)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으로 수렴되고 있음. 최근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은 결혼 및 가족, 자녀가치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정책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3. 서울시 기혼남녀의 가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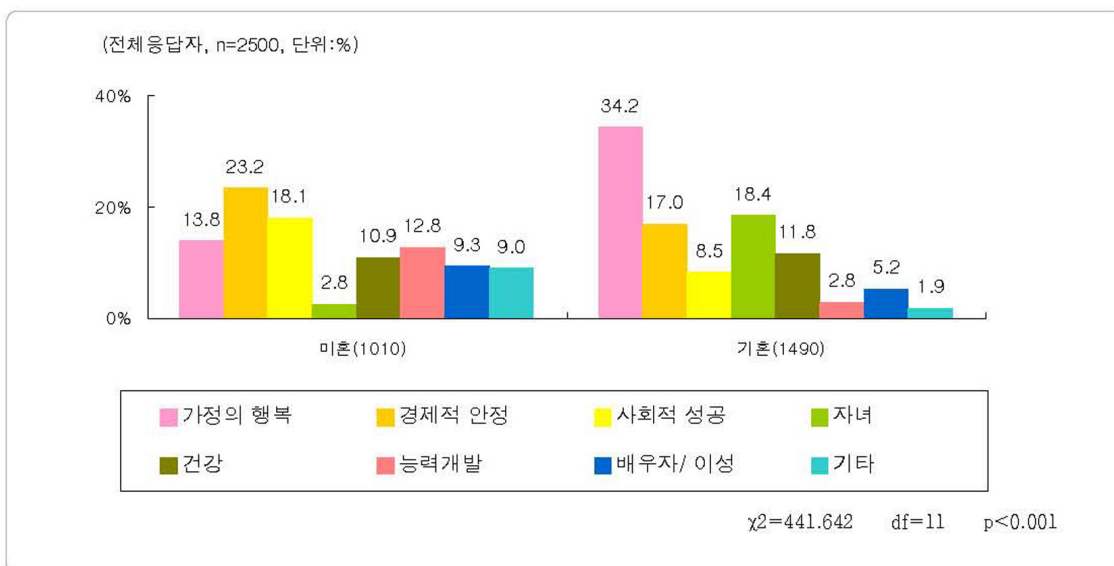
(1) 가족의 중요도

- 서울시 만 25~44세 기혼남녀 1,490명의 96.4%가 인생에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55점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가족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미혼(1,010명) 89.6%(평균 4.30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기미혼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혼들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혼인상태별

-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가정의 행복(34.2%), 자녀(18.4%), 경제적 안정(17.0%)의 순으로 답함으로써 가정과 자녀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 이와 달리, 미혼은 경제적 안정(23.2%), 사회적 성공(18.1%), 가정의 행복(13.8%) 순으로 답했으며, 특히 자녀(2.8%) 가치가 매우 낮음



<그림 3>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혼인상태별

- 전체적으로 미혼보다 기혼의 가족의 중요도 인식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인식이 높으며,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가족의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2) 가족에 대한 태도

- 기혼은 미혼보다 가족중심의 가치가 강한 편이고, 이혼이나 입양, 혼전 동거, 비혼 출산 등에 대한 개방성은 미혼에 비해 낮은 편임. 기혼이 전통적이고 근대적인 가족가치를 좀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기혼 내에서도 자녀의 유무에 따라 가족중심성과 개방적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임

<표 3> 기혼의 가족에 대한 태도

(단위: 점)

문 항		기혼	미혼
가족 중심성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4.20	4.01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11	4.03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4.03	3.90
개방적 가치관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3.28	3.35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16	3.25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2.95	3.16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2.88	3.19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2.79	3.1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2.55	2.61

-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에 기혼은 84.1%가 그렇다고 답해 미혼(79.2%)에 비해 높음. 한편 무자녀 기혼의 경우 배우자 선택시 가족과의 융합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이지만, 유자녀 기혼의 경우 36.6%임. 미혼보다는 기혼이, 무자녀기혼보다 유자녀기혼이 배우자와 가족의 융합을 더욱 중시함.
- 기혼의 27.7%만이 ‘결혼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38.0%는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 반면 미혼의 38.1%가 결혼보다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함. 기혼은 일보다 결혼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미혼은 가족보다는 일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유자녀기혼의 34.0%가 결혼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무자녀기혼의 40.0%가 일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 자녀가 없는 기혼은 일가치에 비해 가족가치를 옹호하며, 자녀가 있는 기혼은 가족보다 일가치를 중요시 여김
- 이혼 등 개방적 가치관에 대한 태도는 기혼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기혼여성(51.6%)이 기혼남성(42%)에 비해 이혼의 지지도가 높음. 한편 입양에 대해서도 기혼남성(25.7%)보다 기혼여성(29.2%)의 지지도가 높고, 한부모가족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역시 기혼남성(39.7%)보다 기혼여성(43.5%)의 지지도가 높음. 기혼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방적 가족관을 보여줌
- 혼전 동거에 대해 무자녀기혼의 43.1%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유자녀기혼의 35.4%가 찬성.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혼전동거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36.6%로 높음.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해 무

자녀기혼의 38.8%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유자녀기혼의 22.8%가 찬성. 유자녀기혼이 전통적 가족질서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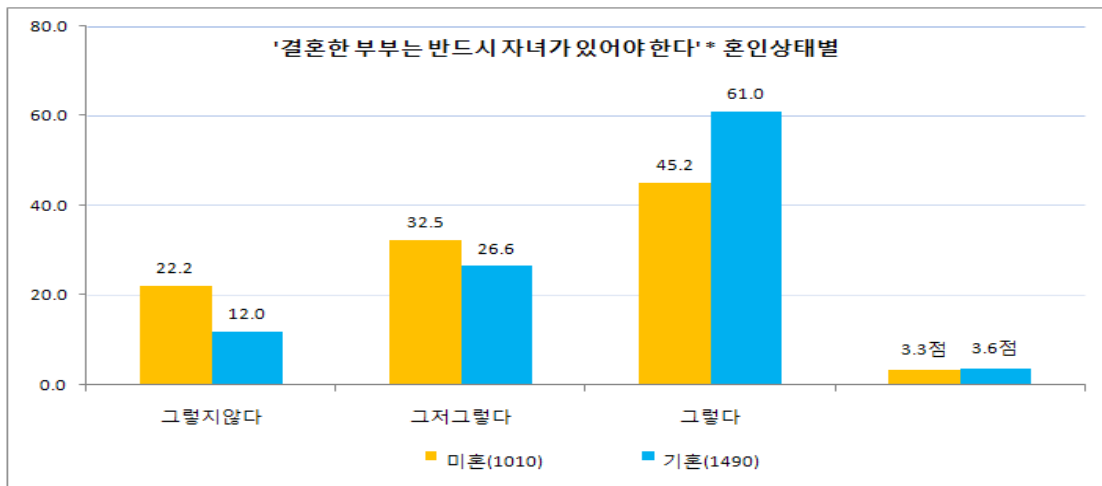
- 무자녀 기혼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 한편 현재 자녀가 3명인 경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전통적인 자녀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통적 자녀관이 강함을 보여줌

4. 서울시 기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의식

(1) 기혼남녀의 자녀관

가. 자녀의 필요성

- 기혼남녀의 61.0%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높게 나타남.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이 같은 응답은 미혼(45.2%)에 비해 높은 수준임. '반드시 자녀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기혼남녀는 12.0%에 불과한데 비해 미혼남녀는 22.2%에 달함. 미혼에 비해 기혼이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 높음



<그림 4>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60.6%)과 기혼남성(61.6%)은 자녀의 필요성을 비슷하게 느낌. 하지만 연령별로 25~29세의 55.4%, 30~34세의 60.5%, 35~39세의 57.8%, 40~44세의 66%가 자녀의 필요성을 지지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필요성을 더 느끼를 알 수 있음. 한편 기혼여성 중에서는 비취업자(62.6%)가 취업자(58.0%)에 대해 자녀의 필요성을 더 느낌

6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나.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 기혼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87.7%가 그렇다고 답해 미혼(78.5%)에 비해 부모됨에 있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 '자녀는 부부간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기혼은 82.5%, 미혼은 79.1%임

<표 4> 기혼남녀의 자녀관

구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점 만점 평균(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0.7	11.4	87.7	4.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준다	1.9	15.3	82.5	4.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6.1	20.2	73.5	3.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5.5	31.5	32.7	2.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38.5	29.7	31.4	2.9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7.7	34.7	47.3	3.3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28.3	34.1	37.2	3.1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	8.1	26.8	64.7	3.7

- '자녀가 있는 사람이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기혼 73.5%, 미혼 68.1%로 기혼과 미혼 모두 높은 비율을 보여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혼은 32.7%, 미혼은 33%가 동의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는 정서적 가치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보임.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지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기대는 낮게 평가함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기혼의 경우 2명 중 1명(47.3%)꼴로 그렇다고 답했지만 미혼의 경우 38.0%가 그렇다고 답해 기혼이 자녀출산의 사회적 성격을 더 많이 인정함. 또한 기혼여성(44.1%)에 비해 기혼남성(51.2%)이 출산의 사회적 성격을 더욱 많이 인식함. 출산의 사회적 성격의 인정은 연령과 월소득, 계층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에 대해 기혼과 미혼, 기혼여성과 남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기혼여성 내에서 차이가 나타남. 취업여성의 32.8%가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취업여성의 38.5%가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답함. 이는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 기혼의 31.4%가 아들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미혼의 24.2%가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 기혼자 내에서는 여성의 28.5%가 아들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35.1%가 아들이 필요하다고 답해 미혼보다는 기혼이, 기혼여성보다 기혼남성이 혈통

을 잇기 위한 아들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인식함을 보여줌

- 기혼남녀는 부모됨의 가치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노후부양의 경제적 측면이나 가계계승 같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는 덜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다자녀보다는 소자녀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2)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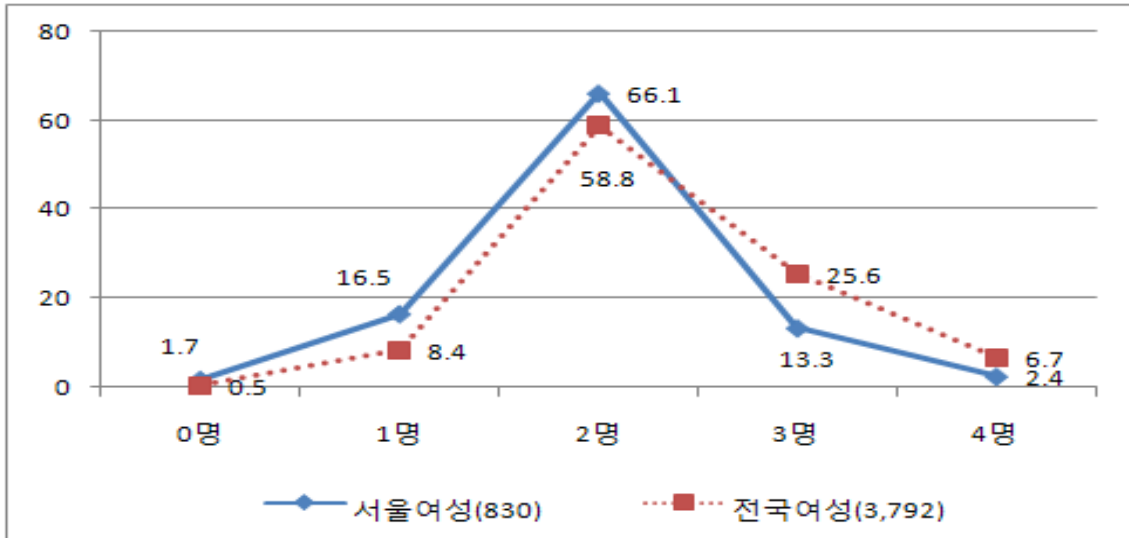
- 희망자녀수는 출산력의 변화를 전망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한 여성이 가임기 전체를 통해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수를 의미함. 이는 응답자가 주관적인 자녀규모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지표로서 의미 가짐
-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2.01명으로 미혼의 희망자녀수 1.87명에 비해 0.14명이 많음. 기혼의 경우 자녀 2명 희망 비율이 65.4%로 가장 높고, 1명 희망비율이 16.0%, 3명 희망비율이 14.9%임. 기혼은 미혼보다 1자녀 희망 비율이 낮고, 3자녀 희망 비율이 더 높아 기혼이 미혼에 비해 다자녀를 희망함

<표 5> 혼인상태별 희망자녀수

		빈도 (명)	평균 희망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혼인 상태	미혼	(1010)	1.87	2.4	21.2	66.2	8.0	1.7	0.1
	기혼	(1490)	2.01	1.6	16.0	65.4	14.9	1.7	0.2
		$\chi^2=34.77$ $df=6$ $p<0.001$							

- 기혼은 성별에 따라 희망 자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기혼여성의 경우 2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6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자녀(16.5%), 3자녀(13.3%)의 순서로 나타남. 기혼남성 역시 2자녀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자녀(16.9%), 1자녀(15.3%)순으로 나타남. 기혼남성은 3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서울시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는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냄. 2자녀 희망비율은 각각 66.1%(전국)와 58.8%(서울)로 가장 높지만, 3자녀 희망비율에서 전국수치는 25.6%로서 서울시 기혼여성(13.3%)의 2배에 가깝고, 1자녀 희망비율은 반대로 서울시 기혼여성(8.4%)이 전국기혼여성(16.5%)의 절반수준임²⁾

2)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은 전국 기혼여성 20~44세로 서울시의 조사대상보다 연령의 범위가 좀 더 넓음. 하지만 서울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29세, 전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28.1세(2007년 기준)라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자녀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5> 전국/서울시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

- 서울시 기혼남녀에게서 2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은 현재자녀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데, 2자녀 희망 비율은 현재 무자녀인 경우 55.9%, 현재 한자녀인 경우 52.4%, 현재 2자녀인 경우 76.5%로 나타남. 하지만 한자녀 선호비율 역시 현재 무자녀이거나(25.7%), 한자녀(36.5%)인 경우 높게 나타나며, 현재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희망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59.6%로 가장 높음. 이를 통해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졸이하의 65.1%, 전문대졸의 64.3%, 대졸의 66.5%가 2자녀를 희망해 이들 간에는 2자녀 희망 비율이 유사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경우 2자녀 희망비율이 59.0%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러나 3자녀 희망 비율이 21.5%로 가장 높음. 고학력자에게서 다자녀 희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25~29세, 30~34세, 35~39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각 2자녀 희망비율이 58.8%, 65.1%, 67.7%로 높아지며, 한자녀 희망비율과 3자녀 희망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40~44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한자녀 희망비율은 11.8%로 가장 낮고, 3자녀 희망 비율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 기혼응답자의 현재 자녀수는 2명이 57.2%로 가장 많고, 1명이 26.0%, 0명이 10.2%, 3명이 6.2%의 순서로 나타남. 현재 자녀수는 성, 연령, 취업여부,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월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연령별로 25~29세의 절반 정도(48.1%), 30~34세 연령층의 19.2%가 조사시점 당시 무자녀로 나타남. 25~34세 연령층에서 한자녀 비율은 36~37%이며, 35~39세 연령층에서는 28.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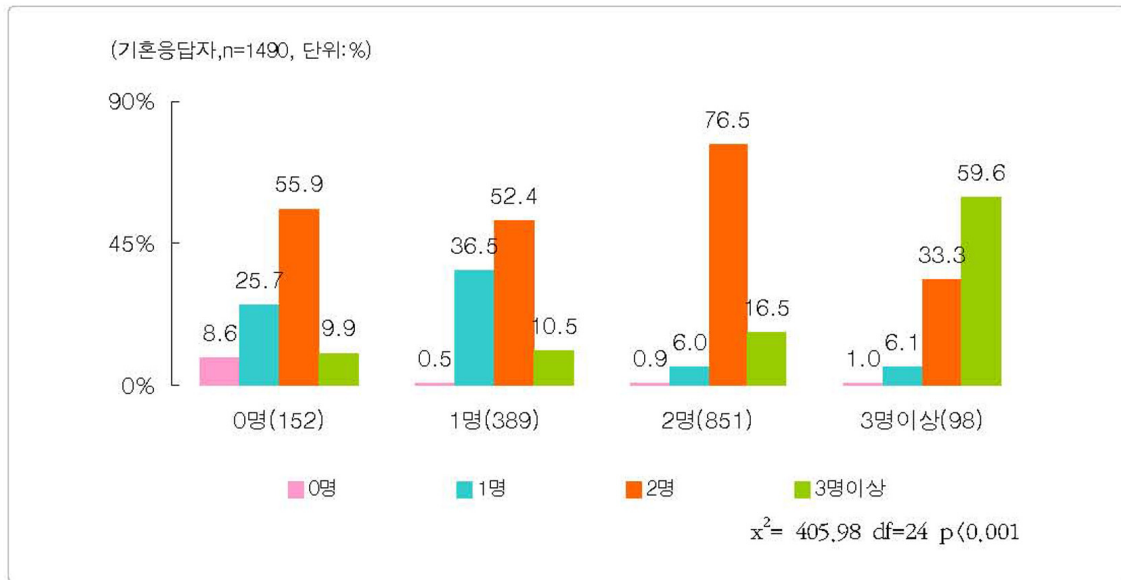
<표 6> 응답자 특성별 현재 자녀 수

			평균 자녀수(명)	0명	1명	2명	3명	4명	
전 체			(1490)	1.60	10.2	26.0	57.2	6.2	0.3
성	여성	(830)	1.65	8.6	25.8	57.9	7.5	0.2	
	남성	(660)	1.55	12.3	26.4	56.3	4.6	0.5	
			$\chi^2=10.34$ df=4 p<0.05						
연령	25~29세	(92)	0.70	48.1	36.4	13.2	2.4	0.0	
	30~34세	(341)	1.29	19.2	37.5	39.0	3.9	0.4	
	35~39세	(547)	1.67	5.5	28.8	59.4	6.3	0.0	
	40~44세	(509)	1.91	2.5	13.5	74.9	8.4	0.7	
			$\chi^2=343.50$ df=12 p<0.001						
취업	취업	(979)	1.56	11.6	27.0	55.4	5.5	0.5	
상태	비취업/미취업	(511)	1.68	7.6	24.2	60.5	7.6	0.0	
			$\chi^2=12.66$ df=4 p<0.05						
성 & 취업 상태	취업 여성	(357)	1.58	11.2	27.4	53.8	7.0	0.5	
	비취업 여성	(473)	1.70	6.7	24.6	60.9	7.8	0.0	
	취업 남성	(622)	1.55	11.8	26.8	56.3	4.6	0.5	
	비취업 남성	(38)	1.46	19.7	19.5	55.5	5.2	0.0	
			$\chi^2=21.92$ df=12 p<0.05						
학력	고졸 이하	(638)	1.73	6.3	24.3	59.9	9.3	0.3	
	전문대	(247)	1.41	14.5	33.2	48.9	3.4	0.0	
	대학교	(565)	1.54	13.1	24.6	57.7	4.1	0.5	
	대학원 이상	(40)	1.63	6.4	30.2	57.2	6.1	0.0	
			$\chi^2=47.93$ df=12 p<0.001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1.51	11.4	32.2	49.9	6.5	0.0	
	화이트칼라	(387)	1.41	16.5	28.8	52.3	2.2	0.2	
	블루칼라	(485)	1.70	7.7	24.5	59.1	7.9	0.8	
	전업 주부	(455)	1.72	6.3	24.0	61.6	8.1	0.0	
	학생/실업/비취업	(56)	1.41	18.7	25.7	52.0	3.6	0.0	
			$\chi^2=59.26$ df=16 p<0.001						
취업자	자영업자/고용주	(330)	1.69	8.8	24.8	56.0	9.3	1.0	
고용	상용근로자	(563)	1.45	14.4	29.2	53.3	3.1	0.0	
상태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1.82	3.8	20.9	66.9	6.6	1.8	
			$\chi^2=38.37$ df=8 p<0.001						

-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여성이 자녀수가 더 적고,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취업남성이 자녀수가 더 많음.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73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1.41명)이 가장 낮으며 대졸(1.54명)에서 대학원 이상(1.63명)은 다시 증가함. 월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더 많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층이 가장 많은 자녀수(1.72명)에 해당함.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자녀수가 1.45명으로 가장 적고, 임시/일용직의 자녀수가 1.82명으로 가장 많음
-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를 보면,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이 2명을 희망하고 있고 (55.9%), 1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25.7%로 나타남. 한편,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2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52.4%로 나타나서 절반 정도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자녀가 없거나 한명이 경우에 희망대로 출산한다면 앞으로 출산가능성이 최소 50%는 된다는 의미임

- 현재 자녀가 둘인 경우에 76.5%가 희망자녀 또한 2명이라고 응답해서 희망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사이의 일치비율이 높은 편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희망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33.3%이고 희망자녀수도 3명인 경우는 약 60%에 달함

<그림 6>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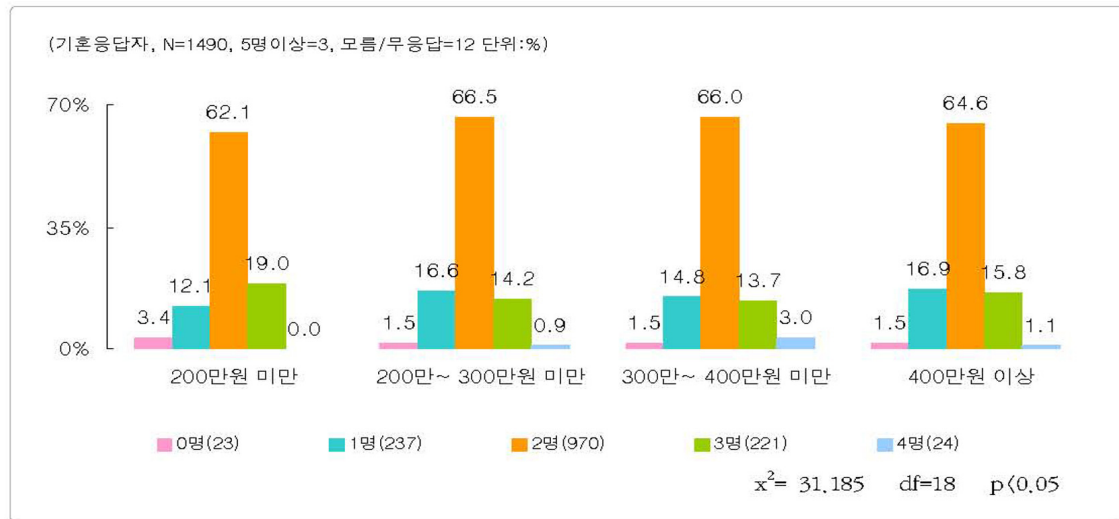


-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 무자녀 희망비율 8.6%를 제외한 91.4%는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무자녀 혹은 한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 37.0%를 제외한 63.0%는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추가’ 출산가능성은 결혼연령과 경제상황, 양육환경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출산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정책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4) 월소득별 희망 자녀수

- 기혼남녀 응답자의 전체 소득층에서 65% 내외가 2명을 희망하지만, 소득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2자녀 희망비율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62.1%, 200~300만원 미만에서 66.5%, 300~400만원 미만에서 66%, 400만원 이상에서 64.6%로 모든 소득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 비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중간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 자녀 희망은 200~300만원 미만 소득집단과 400만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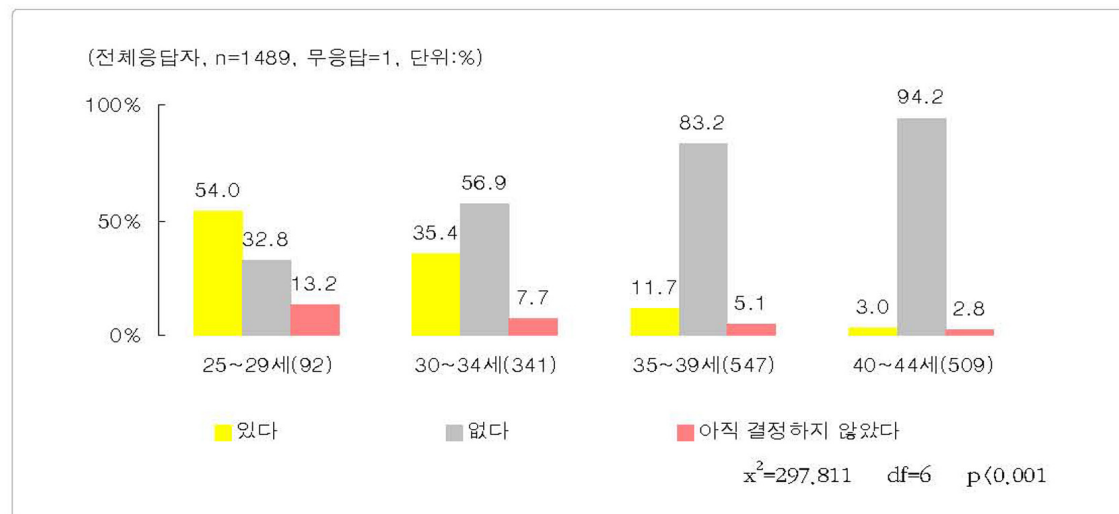
<그림 7> 소득집단별 희망자녀 수



- 혼인, 성, 현재자녀수, 학력, 연령 등에 따라 희망자녀가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 자녀 희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기혼남녀들 사이에서 2자녀가 이상적 자녀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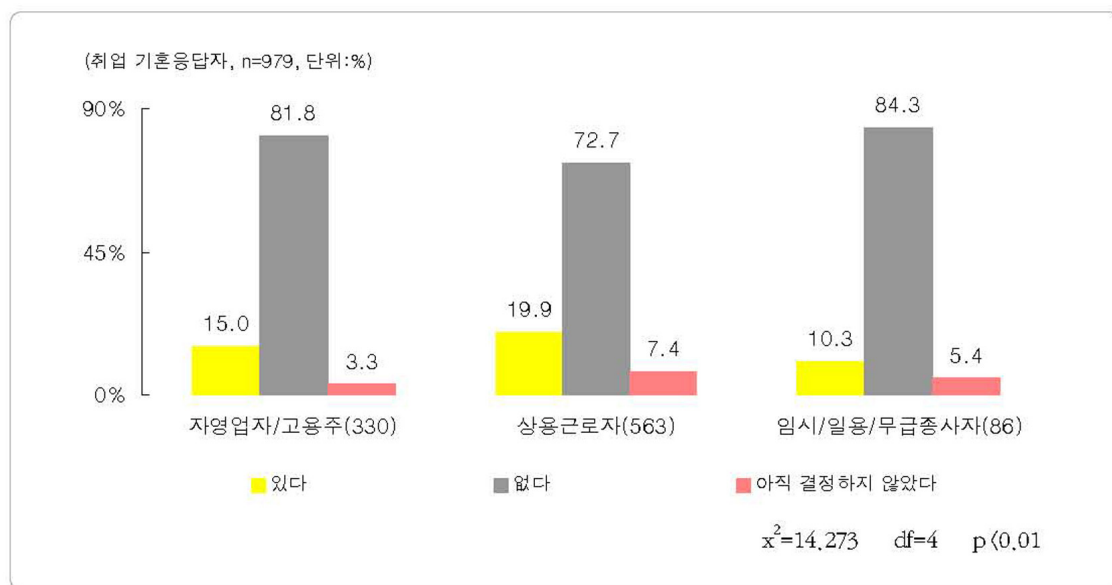
(5) 기혼남녀의 출산계획

- 기혼남녀의 16.8%는 향후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77.8%는 없다고 응답함. 이같은 출산계획은 연령, 현재자녀수, 월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임. 20대의 절반 이상(54.0%)은 추가자녀계획이 있으며, 30대 초반의 35.4%가 자녀계획이 있음. 그러나 30대 후반의 80% 이상, 40대 초반의 95% 정도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5~34세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8> 기혼의 연령별 (추가) 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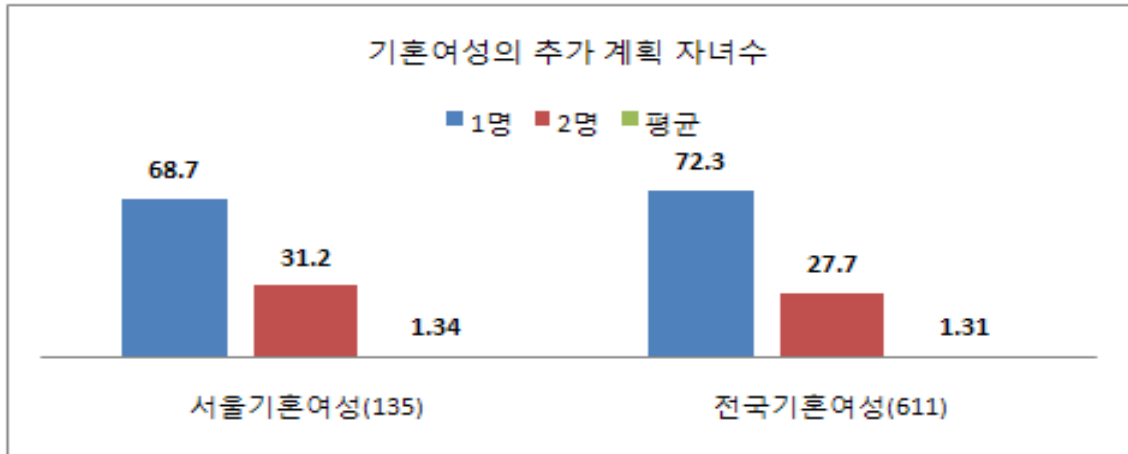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전문대와 대졸집단에서 출산계획 비율이 가장 높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졸이하가 13.7%, 전문대졸 23.5%, 대졸 17.5%, 대학원 이상 13.7%로 나타남.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추가자녀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출산계획 비율이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 추가자녀계획은 직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블루칼라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80.9%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의 경우 추가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6%로 가장 높음. 또한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층의 출산계획 비율이 19.9%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무급 종사자층의 출산계획 비율이 10.3%로 가장 낮음. 상용근로자층의 출산계획이 높은 것은 고정된 수입과 계획 가능한 가계예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9> 고용상태별 (추가)출산계획

-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1명이 69.7%, 2명이 25.8%, 3명이 4.5%로 나타남. 추가자녀계획은 현재 자녀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무자녀 기혼자의 68%, 1자녀 기혼자의 31.4%가 추가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자녀 이상인 경우 95%이상이 추가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 따라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대응책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
- 추가 출산자녀수는 서울시 기혼여성들이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의 전국 기혼여성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냄. 서울시 기혼여성의 평균 추가계획 자녀수는 1.34명이며, 전국 기혼여성의 평균 추가 계획자녀수는 1.31명임. 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추가 계획하는 비율이 서울시 기혼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³⁾

3)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밝힌 서울시 기혼남녀 250명 중 기혼여성 135명과 비교하였음. 또한 서울시 조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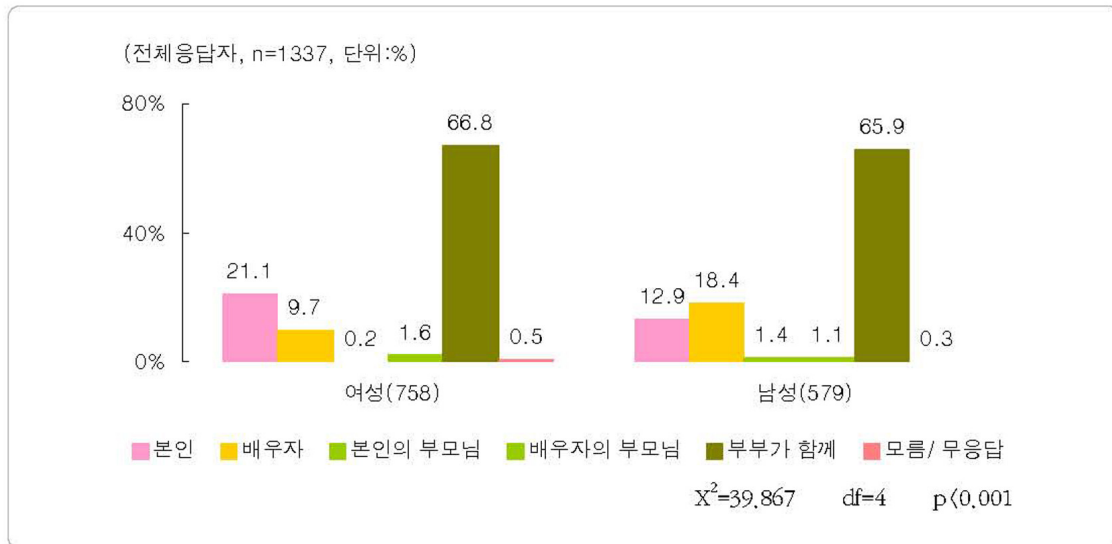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시/전국 기혼여성의 추가 계획 자녀수

-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50명의 기혼자 중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추가 자녀의 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어짐. 즉, 25~29세의 경우 1명 추가 출산계획이 44.8%, 2명 추가 출산계획이 43.8%, 3명 추가 출산계획이 11.4%로 나타나지만, 30~34세의 경우 1명 추가 출산계획이 73.2%, 2명 추가 출산 계획이 24.7%로 낮아짐. 현재 자녀가 없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추가 출산계획과 추가 출산계획자녀수가 많음
-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향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아이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35.3%), 결혼 후 출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25.6%),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21.2%), 주위의 권유로(7.6%), 아들을 낳기 위해(5.0%), 딸을 낳기 위해(2.6%) 순서로 나타났음. 한자녀인 경우 추가로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과 출산의 의미가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과 출산의 규범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 추가로 자녀를 갖고 싶을 때는 나이 들기 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2.1%), 그 다음이 소득이 유지될 때(23.0%), 자녀가 커서 손이 덜 갈 때(9.8%) 순이었음. 출산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혼남녀의 연령과 경제적 조건, 현재 자녀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남
- 추가로 자녀를 갖고 싶은 시기는 성별과 취업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여성은 '나이 들기 전에'(30.5%)와 '소득이 유지될 때'(28.1%)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비취업여성은 '나이 들기 전에'(36.7%)가 가장 높고, '소득이 유지될 때'(20.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취업남성의 경우 역시 '나이 들기 전'과 '소득이 유지될 때'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지만 '배우자가 원할 때'(13.1%)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의 출산 의향이 추가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음

경우 추가 출산계획자녀수를 1명, 2명, 3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추가 출산 계획 자녀수를 1명, 2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맞춰 서울시 조사 결과를 조정하였음. 서울시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 계획자녀수는 1명이 68.7%, 2명이 28.4%, 3명이 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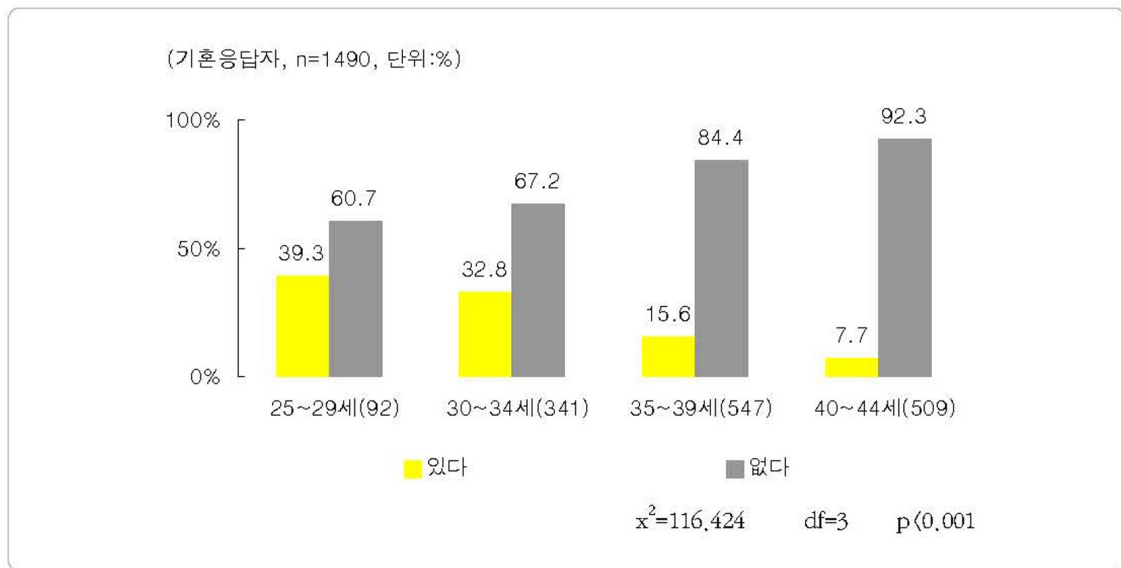
(6) 기혼남녀의 출산결정 요인

- 기혼남녀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부가 함께’ 66.4%, ‘본인’ 17.6%, ‘배우자’ 13.5% 순서로 나타남. 여성에 비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정했다는 비율(18.4%)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본인이 결정했다는 응답(21.1%)이 높게 나타남.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성의 의사와 부부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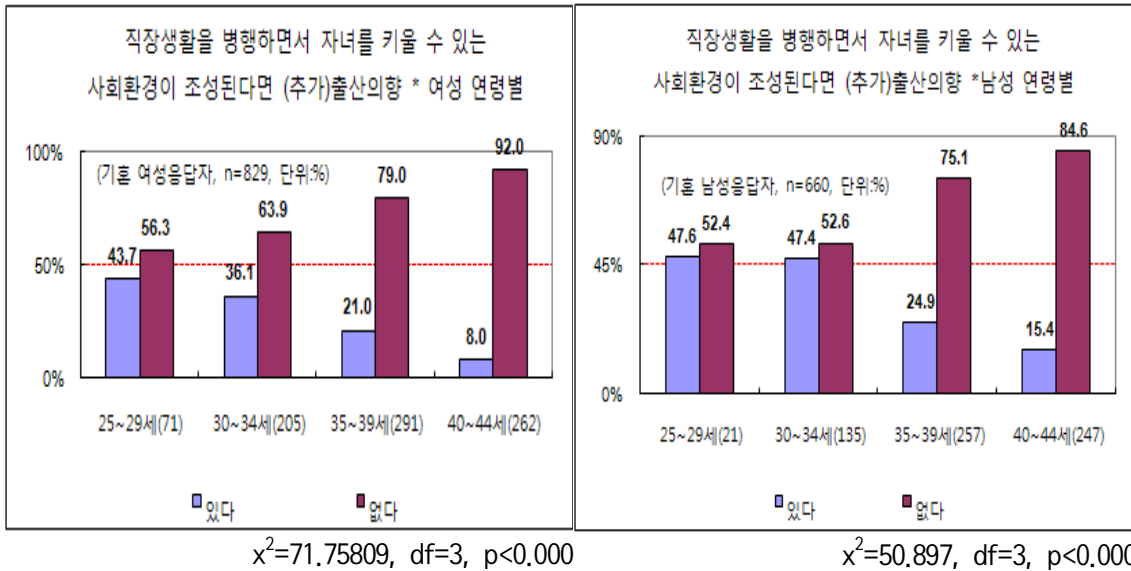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 기혼 중에서도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21.3%) 본인의 결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비율이 60.2%로 가장 낮고, 학생/실업/비취업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비율이 82.4%로 가장 높음
- 배우자와 양육을 분담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8.3%가 ‘있다’고 답했고, 81.7%는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대체로 양육분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추가출산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기혼자 내에서도 성별, 학력, 자녀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할 때 여성의 17.0%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19.9%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할 때 추가 출산의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25~29세는 39.3%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40~44세는 7.7%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



<그림 12>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출산의향*연령별

- 전문대졸 집단에서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졸 집단에서 1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9%, 없다는 대답이 82.1%임.
-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은 현재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무자녀 기혼자들의 경우, 양육분담 이루어진다면 절반 정도(50.3%)는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자녀 가정에서도 3중 1명 이상(33.8%)이 출산의향 있다고 응답. 그러나 2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양육분담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혼남녀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4.5%, 추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5.5%임. 이 같은 응답은 성별과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혼남성의 26.6%가 추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데 비해 기혼여성의 22.7%가 추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 이는 여성들이 직장 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더욱 많이 지고 있으며 이것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특히 출산 가능성이 높은 30~34세에서 성별에 따라 추가 출산 의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36.1%만이 추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47.4%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 30대 초반 취업 여성들의 일-가족 이중 부담을 덜고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함



<그림 13> 기혼남녀의 연령별 일가족양립시 (추가)출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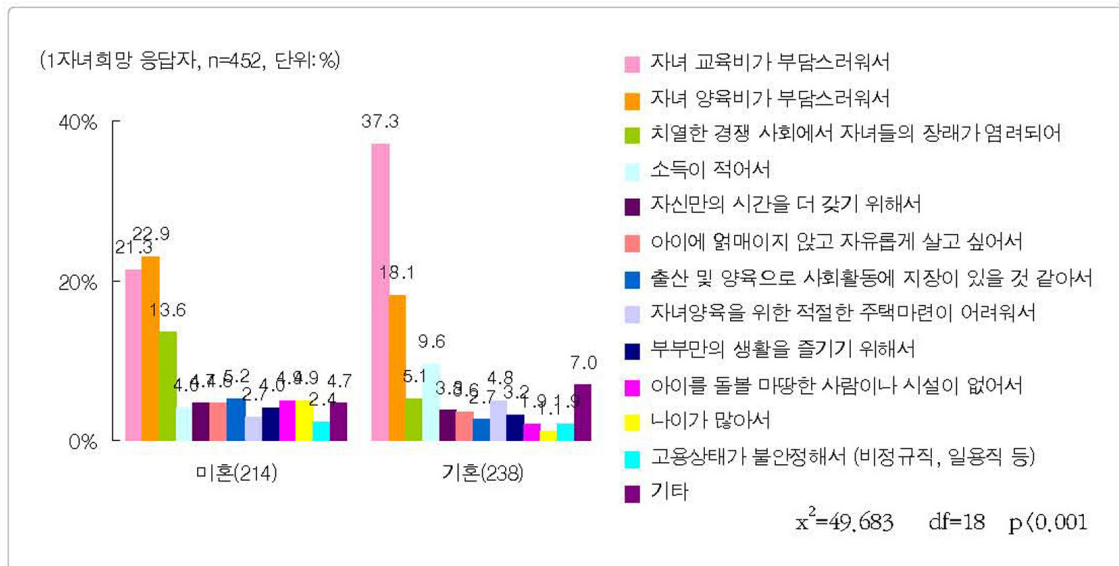
-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환경이 조성될 경우 추가 출산의향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짐. 고졸의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8.7%, 없다는 응답이 81.3%, 대졸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27.4%, 없다는 응답이 72.6%, 대학원 이상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34.5%, 없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남

(5) 기혼남녀의 한자녀 혹은 무자녀 희망 이유

가. 한자녀 희망 이유

- 한자녀를 희망하는 기혼은 16.0%로 미혼의 21.2%에 비해 낮음. '자녀 교육비 부담'(37.7%), '자녀 양육비 부담'(18.1%)이 한자녀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남. '소득이 적어서'(9.6%)가 그 다음을 차지해 경제적 비용과 조건이 소자녀 지향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줌.
- 취업여성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 인프라는 일가족양립을 위해 중요한 조건인데, '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2.7%),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1.9%),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4.8%) 등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 및 양육 지원의 부족과 관련한 요인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함
-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3.8%),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3.6%),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3.2%),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1.9%) 등 자녀출산이나 가족의 집합가치보다는 개인이나 부부중심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비율도 10%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자녀를 하나만 갖기 원하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66.9%(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55.4%, 소득이 적어서 9.6%, 고용상태 불안 1.9% 등)로 2/3 이상을 차지함. 미혼남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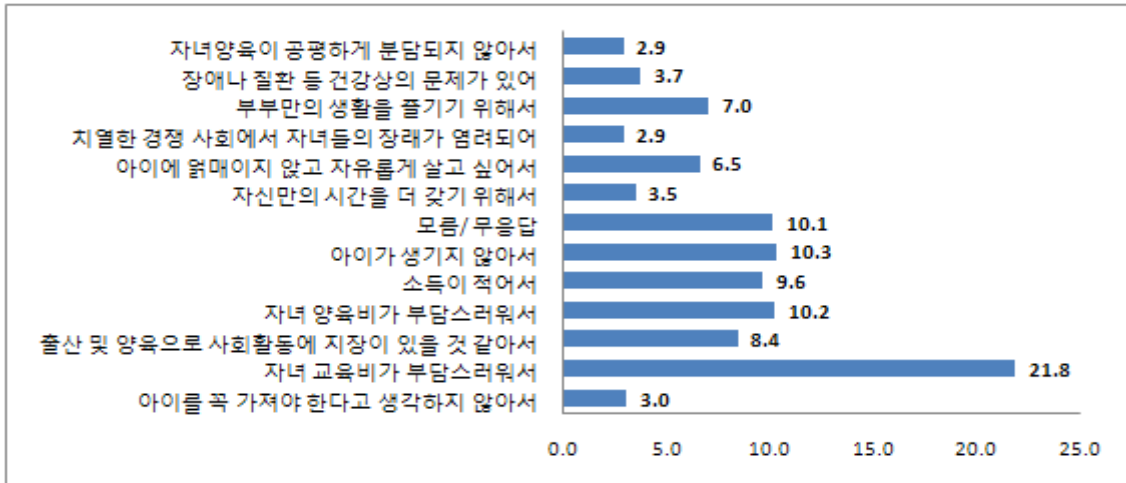
자녀를 하나만 갖기를 원하는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51.5%(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44.2%, 소득이 적어서 4.0%, 고용상태 불안 2.4%, 실업상태 0.9% 등)를 차지한데 비해 기혼남녀에게 경제적 요인이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그림 14> 혼인상태별 한자녀 희망 이유

나. 무자녀 희망이유

- 자녀를 원하지 않는 기혼남녀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자녀를 원하지 않는 미혼남녀(2.4%)에 비해 비율이 낮음.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21.8)로서 미혼남녀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인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29.4%)와 차이를 보여줌. 기혼의 경우 한자녀 희망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지만 미혼은 가족 및 자녀가치의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 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10.3%), ‘자녀교육비 부담’(10.2%), ‘소득이 적어서’(9.6%) 등 주로 경제적이거나 외적인 요인이 기혼남녀의 무자녀 희망 요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8.4%),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7.0%)와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6.5%) 등 자녀출산이나 가족의 집합가치보다는 개인이나 부부중심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21.9%를 차지함



<그림 15> 서울시 기혼남녀의 무자녀 희망 이유

- 기혼남녀가 무자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요인 보다 그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가족적 가치보다 개인이나 부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 역시 기혼남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서울시 기혼남녀의 성역할 분담에 관한 의식

(1) 부부 성역할 의식

- 기혼들은 [남성생계부양 - 여성 전업주부] 가족모델에 대해서 반대보다 찬성의견이 높고, 자녀 및 노인돌봄을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전통적 성별분업에 긍정적인 편임. 그러나 취업한 아내의 일-가족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27.4%), '그저 그렇다'(32.5%), '그렇다'(40.1%),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다른 전통적 성별분업에 비해 덜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육아 및 가사의 공평분담에 대해서는 분담해야 한다 66.1%에 5점 만점에 3.7점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다른 항목들에서 전통적 성역할규범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의 평등한 역할분담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혼남녀의 성역할 의식이 변화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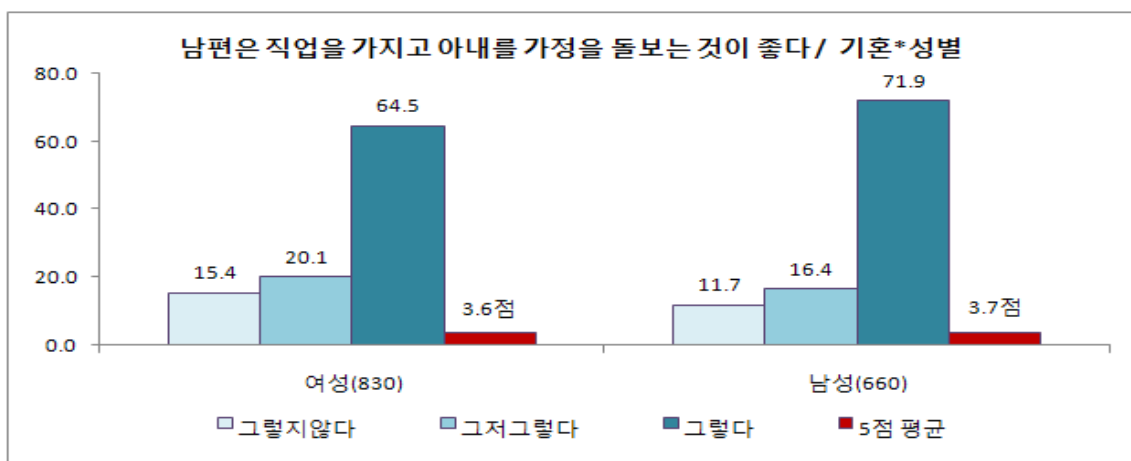
<표 7> 기혼남녀의 부부 성역할 인식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점)
전통적 부부역할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기혼	13.8	18.5	67.9	3.7
		미혼	20.6	24.5	54.9	3.4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기혼	11.6	27.0	61.4	3.6
		미혼	14.7	32.0	53.3	3.5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기혼	27.4	32.5	40.1	3.1
		미혼	32.0	32.3	35.6	3.0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 편이 책임져야 한다	기혼	10.2	26.3	63.5	3.6
		미혼	16.9	32.0	51.1	3.4
평등한 부부역할	남편은 아내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기혼	4.8	29.1	66.1	3.7
		미혼	6.0	28.5	65.4	3.7
대안적 부부역할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기혼	44.3	31.9	23.6	2.6
		미혼	43.4	34.9	21.5	2.7

가.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미혼의 54.9%가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지만 기혼의 67.8%가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보다 기혼의 전통적 성역할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기혼남녀 내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통적인 부부간 성역할분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 64.5%가 이런 견해에 찬성하지만 기혼남성은 71.9%가 여기에 찬성함.



t=-2.432, df=1488, p<0.05

<그림 16>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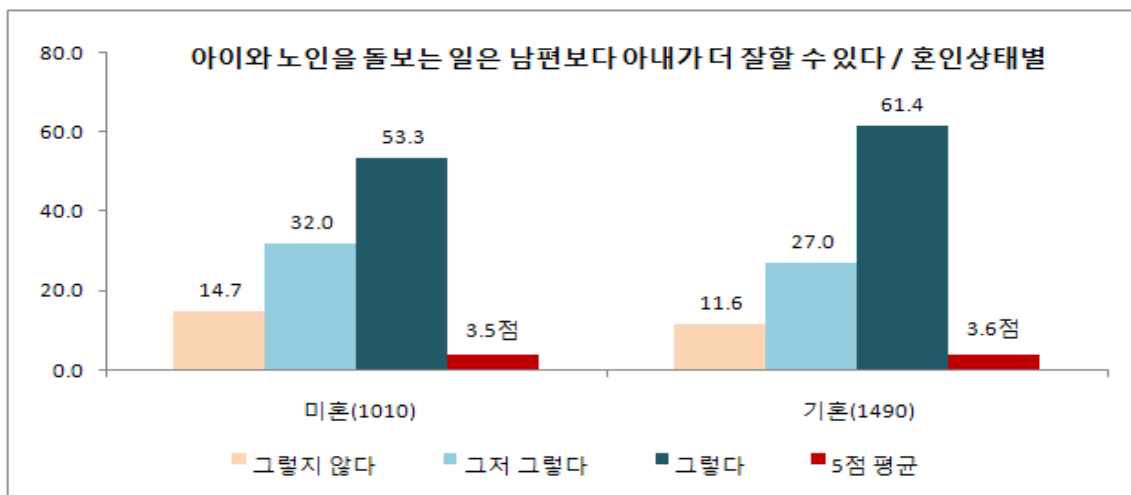
-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은 돌보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성별보다는 결혼여부가 영향을 미침. 미혼의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동의정도는 기혼여성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점을 보면 미혼여성 3.3점, 미혼남성 3.5점, 기혼여성 3.6

점. 기혼남성 3.7점 순으로 나타남

- 기혼집단 내에서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은 돌보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는 기혼 취업여성이 가장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혼남성은 취업남성이 평균 3.7 점, 비취업남성이 3.8점으로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 취업여성은 ‘그 령지 않다’ 19.3%, ‘그저 그렇다’ 20.2%, ‘그렇다’ 60.5%, 평균 3.5점, 비취업여성은 ‘그렇지 않 다’ 12.5%, ‘그저 그렇다’ 20.0%, ‘그렇다’ 67.5%, 평균 3.7점으로 나타나 기혼여성 내에서도 취 업여부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나.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기혼남녀의 11.6%가 ‘그렇지 않다’, 27.0%가 ‘그저 그렇다’, 61.4%가 ‘그렇다’고 답해 전통적 성 역할에 미혼에 비해 동의정도가 높음. 이러한 견해에 대해 미혼의 14.7%가 ‘그렇지 않다’, 32.0% 가 ‘그저 그렇다’ 53.3%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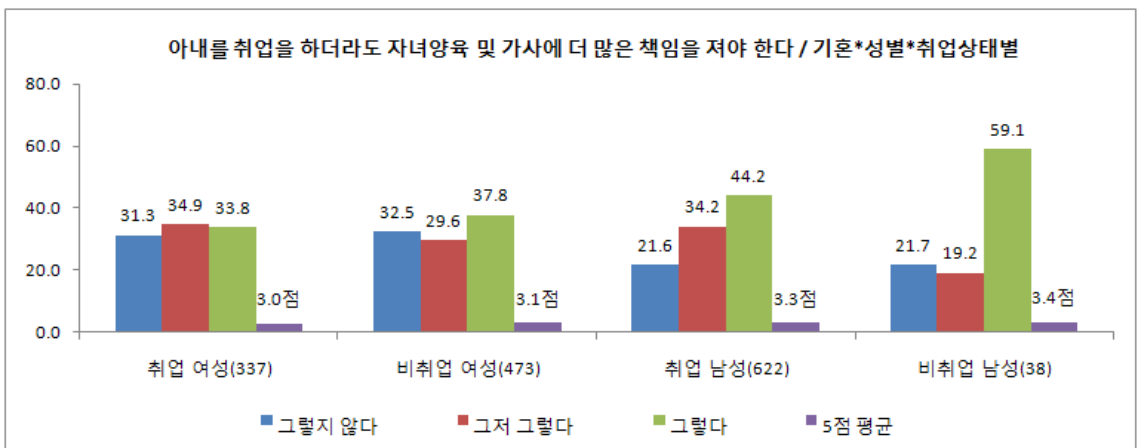
t=-3.684, df=2,497, p<0.000

<그림 17>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에 대한 태도

- 성별에 따라 기혼여성이 5점 만점에 평균 3.5점을 기록한 반면, 기혼남성은 평균 3.7점을 기록함. 기혼 중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좀더 높음. 또한 취업상태에 따라서 취업여성에 비해 비취업여성이 전통적 성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좀더 높음
-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돌봄역할을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전통적 태도가 강함. 무자녀 기혼 자와 한자녀 기혼자는 평균 3.5점, 2자녀 기혼자는 평균 3.6점, 3자녀 기혼자는 평균 3.8점, 4자 녀 기혼자는 평균 4.4점을 보이고 있음

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문항에 대해 기혼남녀의 27.4%가 그렇지 않다, 32.5%가 '그저 그렇다', 40.1%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한편 미혼남녀의 32.0%가 '그렇지 않다', 32.3%가 '그저 그렇다', 35.6%가 '그렇다'고 답해 미혼보다 기혼의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 32.0%, '그저 그렇다' 31.9%, '그렇다' 36.1%, 평균 3.0점이며, 기혼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 21.6%, '그저 그렇다' 33.3%, '그렇다' 45.1%, 평균 3.3점으로 기혼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여성이 가장 비전통적 성역할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비취업여성, 취업남성, 비취업남성의 순으로 점점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취업남성의 경우 취업한 아내가 가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에 대해 59.1%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F=7.649, df=3, p<0.000

<그림 18>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한 태도

-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맞벌이 상황에서 양육 및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의견이 유사하며, 자녀가 3명인 경우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에 46.8%가 '그렇다'고 응답해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짐

라.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기혼의 10.2%가 '그렇지 않다', 26.3%가 '그저 그렇다', 63.5%가 '그렇다'고 응답해 5점 만점에 평균 3.6점을 보여줌. '그렇지 않다'에 16.9%, '그저 그렇다'에 32.0%, '그렇다'에 51.1%가 응답해 평균 3.4점을 보여주는 미혼에 비해 기혼이 좀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 - 전업주부 모델을 지지하고 있음
- 기혼남성은 평균 3.73점으로 기혼여성(평균 3.58점)에 비해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음. 또한 기혼여성(평균 3.58점)이 미혼남성(평균 3.43점)보다 전통적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음

마. '남편은 아내와 육아 및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기혼남녀는 '남편은 아내와 육아 및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에 4.8%가 '그렇지 않다', 29.1%가 '그저 그렇다', 66.1%가 '그렇다'고 답해 찬성의견이 지배적임. 다른 부부성역할 항목과는 달리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하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기혼여성이 5점 만점에 평균 3.8점, 기혼남성이 평균 3.6점을 나타내고 있어 기혼여성이 부부간의 동등한 육아 및 가사 분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음. 미혼여성 평균 3.9점, 기혼여성이 평균 3.8점, 미혼남성 3.6점, 기혼남성 3.6점으로 혼인여부보다는 성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혼여성에 비해 기혼남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는 가사 및 양육분담을 둘러싼 갈등의 잠재성이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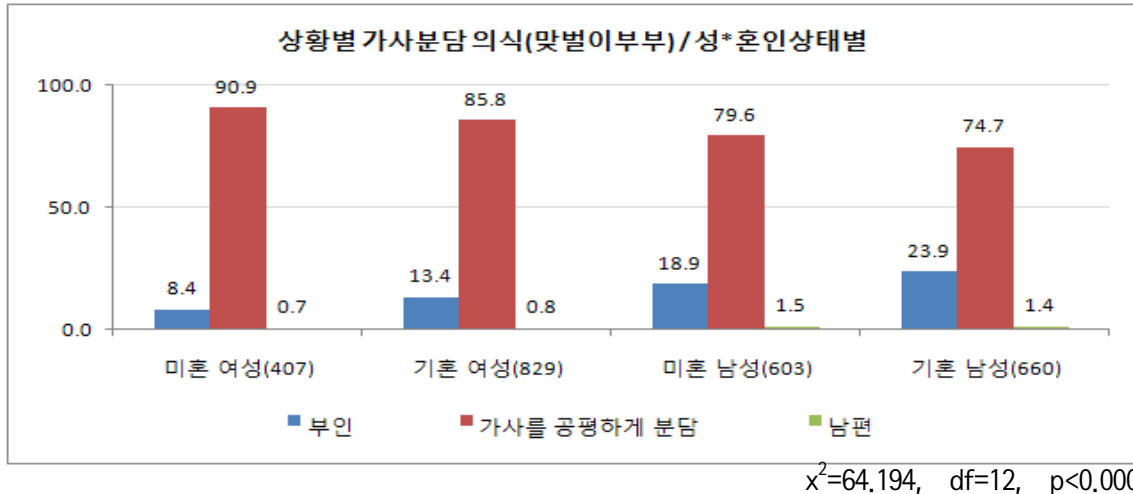
바. '아내가 직업을 갖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기혼남녀의 태도

- 기혼의 경우 '아내가 직업을 갖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에 '그렇지 않다' 44.3%, '그저 그렇다' 31.9%, '그렇다' 23.6%가 응답해 평균 2.6점을 보여줌. 미혼의 경우 '그렇지 않다' 43.4%, '그저 그렇다' 34.9%, '그렇다' 21.5%, 평균 2.7점으로 미혼과 기혼 모두 여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
- ◎ 기혼남녀는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항목에서 일관되게 5-10% 정도, 평균 점수로는 0.1~0.3점 정도의 인식격차를 보이며 기혼여성에 비해 기혼남성의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 따라서 가족 내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성별 인식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2) 맞벌이/홀벌이에 따른 가사분담 의식

가. 맞벌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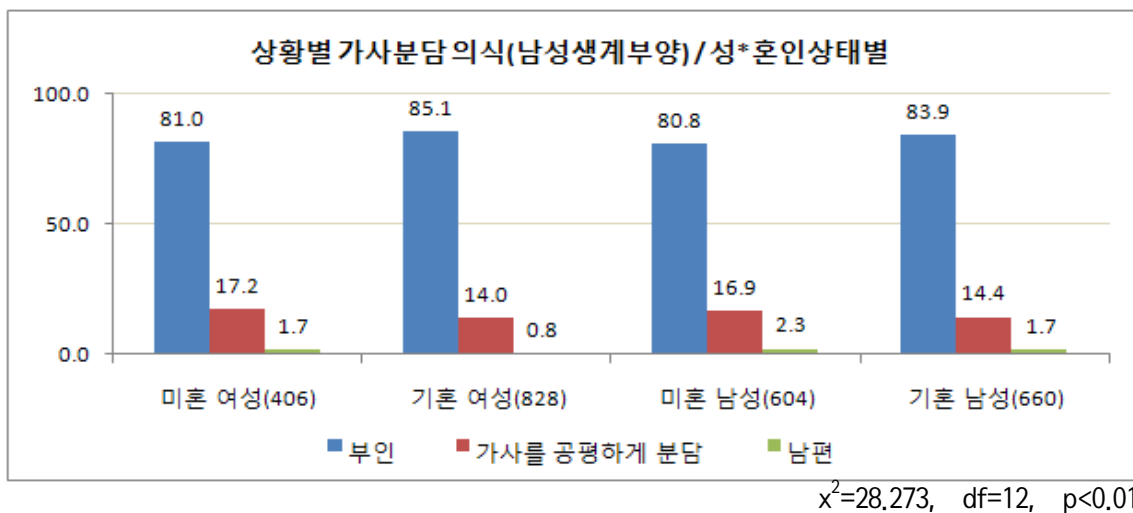
- 기혼남녀의 80.9%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18.1%에 달함
- 기혼여성의 85.8%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남성은 74.7%임. 또한 미혼여성의 90.9%, 미혼남성의 79.6%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해 결혼여부보다는 성별이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9>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맞벌이의 경우)

나. 남성 홀벌이 경우

- 남성 홀벌이의 경우 기혼남녀의 84.6%가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가사전담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기혼남녀의 14.2%는 가사를 공평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2%가 남편이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
- 기혼여성의 85.1%, 기혼남성의 83.9%가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냄. 미혼여성의 81.0%, 남성의 80.8%가 부인이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20>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남성 홀벌이의 경우)

다. 여성 홀벌이 경우

- 여성 홀벌이의 경우 기혼남녀의 75.7%가 남편이 '가사를 주로 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해 그 비율이 압도적임. 남성홀벌이에서 여성이 부인이 '가사를 주로 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 84.6%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고,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18.9%임

(3) 기혼남녀의 가사분담 실태

- 식사준비에 있어 기혼여성의 89.8%, 기혼남성의 84.8%가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고 해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사 준비를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짐. 부인이 담당한다고 한 비율은 25~29세가 76.1%, 30~34세가 84.4%, 35~39세가 88.6%, 40~44세가 90.6%임. 성과 취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여성의 85.9%, 비취업여성의 92.6%, 취업남성의 84.6%, 비취업남성의 87.4%가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함
- 기혼여성의 71.5%, 기혼남성의 63.9%가 청소를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에게서 청소 분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혼여성의 81.9%, 기혼남성의 77.7%가 설거지를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고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낮아지고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짐. 취업여성의 20.6%, 비취업여성의 12.3%가 설거지를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해 취업여성의 분담비율이 높음
- 기혼여성의 82.6%, 기혼남성의 81.9%가 부인이 세탁을 담당한다고 응답. 25~29세의 경우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64.5%인 반면 40~44세는 85.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인부담이 높아짐. 학력별로는 전문대졸(20.0%)과 대학원 이상(21.9%)에서 부인과 남편의 세탁 분담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에서 부부의 세탁 분담비율(18.9%)이 높게 나타남
- 시장보기는 비교적 부인과 남편의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으로서, 기혼여성의 39.7%, 기혼남성의 45.5%가 부부가 함께 시장을 본다고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장보기의 부인 부담이 높아지고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이 낮아짐. 학력별로는 전문대(49.0%)와 대학원 이상(68.0)에서 부부의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49.1)의 분담비율이 높게 나타남. 임시/일시/무급노동자의 경우 부인 부담 비율이 66.3%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집관리에서는 남편의 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42.3%, 기혼남성의 46.8%가 집관리를 남편이 부담한다고 응답. 상용근로자층(48.2%)에서 집관리의 남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음
- 기혼여성의 79.8%, 기혼남성의 80.3%가 자녀 옷입히기를 부인이 부담한다고 응답.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27.8%)과 전문대졸(19.6%)의 경우에 부인과 남편이 함께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직(18.8%)에서 함께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음

- 기혼여성의 41.9%, 기혼남성의 48.2%가 아이와 놀아주기를 부부가 함께 분담한다고 응답해 돌봄 활동중 가장 높은 분담율을 보여줌. 또한 다른 가사일과 달리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이 연령에 따라 비례하지 않아, 전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부부가 분담한다고 응답. 또한 30~34세에서는 51.8%가 아이와 놀아주기를 부부가 함께 분담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줌.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과 전문대졸의 분담 비율이,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분담비율이 높음
- 기혼여성의 32.7%, 기혼남성의 35.8%가 아이가 아플 때 부부가 함께 보살핌다고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낮아지나, 30~34세에서는 다른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은 부부 분담율을 보임. 이는 아이와 놀아주기에서 가장 높은 분담율을 보인 것과 상반됨. 대학원 이상과 대졸에서 분담 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에서 분담 비율 높음
- 기혼여성의 26.3%, 기혼남성의 29.7%가 아이의 숙제지도를 부부가 함께 분담한다고 응답. 취업남성의 분담 비중이 28.4%인데 반해 비취업남성의 분담 비중이 52.3%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비취업남성이 가지는 시간적 여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과 전문대 졸, 직업별로는 학생/실업/비취업,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에서 분담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혼여성의 22.9%, 기혼남성의 27.4%가 아이의 등하교동행을 부부가 함께 분담한다고 응답. 비취업남성의 부부 분담 비율이 52.1%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숙제 지도와 더불어 비취업남성의 시간적 여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직업별로는 학생/실업/비취업에서 부부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사노동에서는 식사준비, 청소, 설거지, 세탁에 비해 집관리에서 남성의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시장보기에서도 부부가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자녀돌봄에서는 아이와 놀아주기에서 부부분담 비율이 가장 높고, 밥 먹이기와 옷 입히기에서는 부인의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아이가 아플때 보살피기, 숙제 지도, 등하교 동행에서도 가사노동에 비해 남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비해 자녀보살핌에서 남편의 참여정도가 더 높음

<표 8> 기혼남녀의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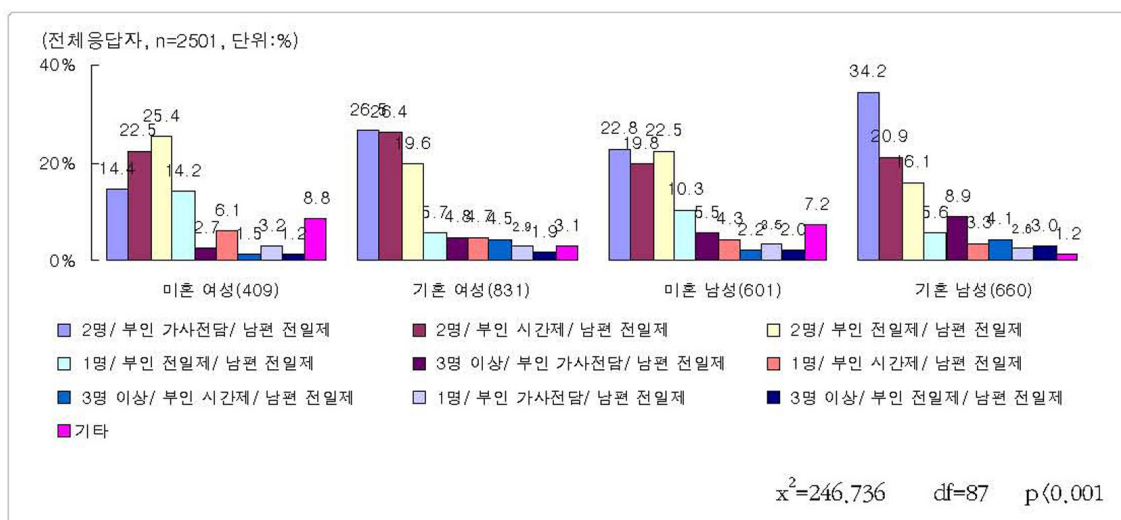
구분			주로 부인	부부가 함께	주로 남편
가사노동	식사준비	여성	89.8	9.5	0.6
		남성	84.8	14.4	0.5
	청소	여성	71.5	23.9	4.5
		남성	63.9	31.4	4.4
	설거지	여성	81.9	15.8	2.2
		남성	77.0	21.6	1.3
	세탁	여성	82.6	15.7	1.7
		남성	81.9	17.0	1.1
돌봄노동	시장보기	여성	57.7	39.7	2.6
		남성	51.3	45.5	3.0
	집관리(집손질, 세차 등)	여성	25.2	32.2	42.3
		남성	20.7	32.2	46.8
	밥 먹이기	여성	79.8	17.1	0.8
		남성	78.2	19.4	0.9
	옷 입히기	여성	79.8	17.5	0.5
		남성	80.3	17.3	0.7
	놀아주기	여성	50.5	41.9	5.8
		남성	44.0	48.2	6.6
	아플 때 보살피기	여성	64.7	32.7	1.2
		남성	61.9	35.8	1.5
	숙제 지도	여성	68.2	26.3	2.8
		남성	66.1	29.7	2.3
	등하교 동행	여성	72.0	22.9	1.8
		남성	65.1	27.4	4.9

- 기혼남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모든 가사일에서 부인의 부담 비율을 5~10%정도 낮게 응답하고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비율을 높게 응답함으로써 가사일을 부부가 함께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가사노동과 자녀보살핌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부인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분담비율이 낮아지며, 비취업여성에게서 부인의 부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과 전문대졸에서,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원직,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에게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부부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성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음

(4) 기혼남녀가 선호하는 부부경제활동유형과 자녀수

- 기혼남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구형태는 [자녀 2명에 부인은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은 전일제로 노동하는] 남성생계부양자 - 부인 전업주부 형태로 나타남(29.9%). 그 다음은
 - [자녀 2명 + 부인 시간제 + 남편 전일제] 24.0%
 - [자녀 2명 + 부인 전일제 + 남편 전일제] 18.1%
 - [자녀 3명 + 부인 가사전담 + 남편 전일제] 6.7% 순서임

- 반면 미혼남녀는 [자녀 2명에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23.7%). 그 다음은
 - [자녀 2명 + 여성 시간제 + 남성 전일제] 20.9%
 - [자녀 2명+ 여성 가사전담 + 남성 전일제] 19.4%
 - [자녀 1명 + 여성 전일제 + 남성 전일제] 11.9% 순서임
- 기혼과 미혼의 이상적 경제활동유형과 자녀수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은 맞벌이 부부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기혼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형 가구형태를 선호함. 또한 기혼은 여성이 노동을 할지라도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것을 선호함
- 이는 혼인여부*성에 따라서도 다른데,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2명 + 부인 가사전담 + 남편 전일제]가 2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 2명 + 부인 시간제 + 남편 전일제]가 26.4%, [자녀 2명 +부인 전일제 + 남편 전일제]가 19.6% 임. 기혼남성의 경우 [자녀2명 + 부인 가사전담 + 남편 전일제]가 3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 2명 + 부인 시간제 + 남편 전일제]가 20.9%, [자녀 2명 +부인 전일제 + 남편 전일제]가 16.1% 순으로 나타남. 기혼남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더 지지하며, 시간제이든 전일제이든 부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기혼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맞벌이를 희망하는 이들 가운데 기혼여성의 전일제 희망비율은 51.9%(기혼여성 27.2%, 기혼남성 24.7%)이며, 시간제 희망비율은 63.9%(기혼여성 35.6%, 기혼남성 28.3%)로 시간제 맞벌이를 남녀 모두 더 선호함. 이는 미혼남녀의 전일제 희망비율이 78.7%(미혼여성 42.8%, 미혼남성 35.9%)로 시간제 희망비율은 65.2%(미혼여성 34.7%, 미혼남성 30.5%)에 비해 높았던 것과는 대조됨. 기혼이 미혼에 비해 전일제 맞벌이보다 시간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것은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실제로 더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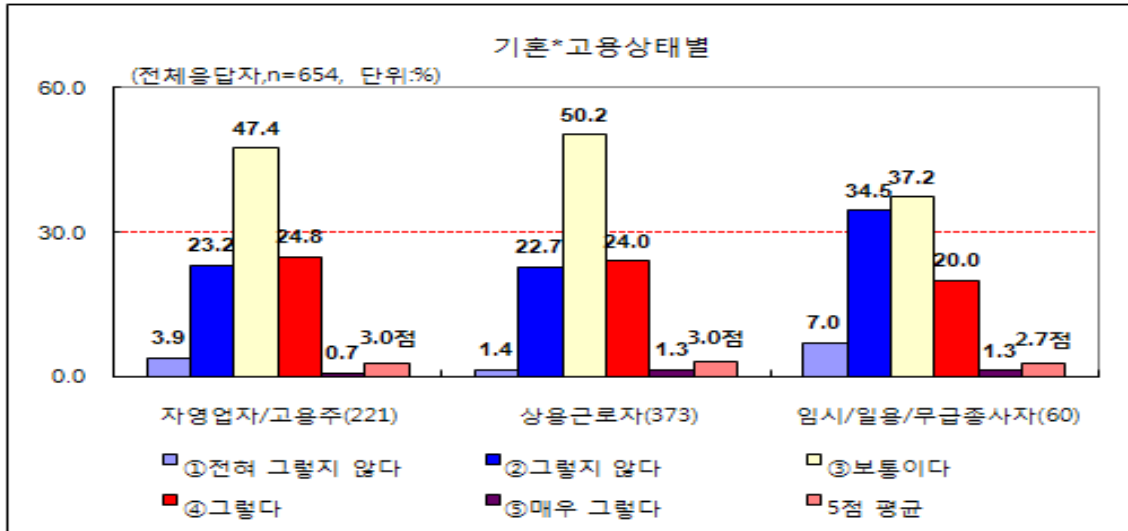
<그림 21> 성&혼인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기혼남녀의 70% 이상이 자녀 2명 이상에 여성의 전업주부역할과 부인의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일제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는 비율도 낮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기존의 남성생계부양 - 전업 주부를 전제로 운영되었던 사회제도들이 남성생계부양자 - 전업주부 모델, 시간제 맞벌이 부부, 전일제 맞벌이 부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화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에 이어 부부경제활동과 자녀수의 선호도에서도 자녀2명에 대한 이상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6.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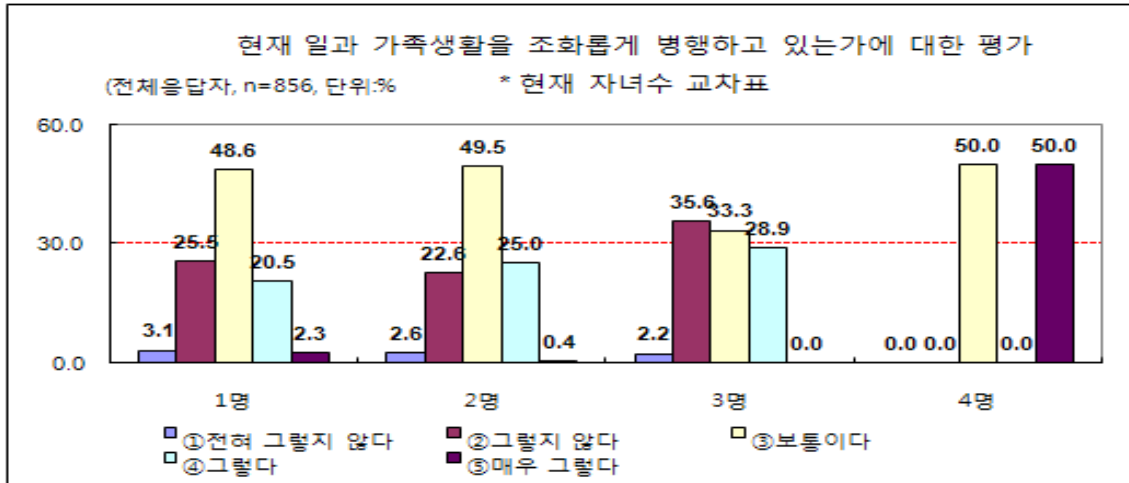
(1)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e) 정책은 개인의 생활을 일-가족생활-개인생활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임.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이인소득자 가족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일과 가족생활, 나아가서 개인생활간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혼남녀의 2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48.1%가 보통이다, 24.9%가 그렇다고 답해 5점 만점에 평균 3.0점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미혼의 경우 33.7%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기혼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3.1점).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는 고용상태, 성, 자녀수에 따라 차이있음
- 기혼여성의 28.4%는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지 않다, 50.4%는 보통이다, 21.1%는 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남성은 25.3%가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지 않다, 46.1%가 보통이다, 28.3%가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고 응답해 기혼여성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함
- 임신/일용/무급종사자는 일가족양립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일가족양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 역시 임신/일용/무급종사자층에서 가장 낮음. 따라서 이들의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2> 기혼남녀의 고용상태별 일가족양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자녀가 어린 30~34세 연령층에서 일가족양립이 어렵다는 비율이 33.2%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자녀가 큰 40~44세에서 26.4%로 가장 높음. 또한 취업여성의 경우 32.8%가 일가족양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고, 비취업남성 역시 56.3%로 높음. 일가족양립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취업남성이 2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취업여성(25.7%)임. 따라서 취학전 아동이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이 필요함
- 고졸이하에서 일가족양립이 어렵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 집단에서 22.7%로 가장 낮음. 일가족양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집단에서 가장 높아 40.2%임. 이는 대학원 이상과 전문대졸 집단에서 부부간의 가사 분담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부부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일-가족의 이중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일가족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일가족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혼남녀일수록 희망자녀수는 적음. 희망자녀수가 2-3명일 경우, 일가족양립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이 높음. 희망자녀수가 2명일 때 50.9%가 일가족양립이 보통이다, 25.8%가 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자녀수가 3명일 때 39.7%가 일가족양립이 보통이다, 25.0%가 되고 있다고 응답. 희망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오히려 일가족양립이 어렵다고 생각함.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희망자녀수는 2명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자녀수가 1명과 2명인 경우 간에는 일가족양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 현재 자녀수가 1명보다 2명일 경우에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음. 한편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5.6%로 급증함



$\chi^2=97.812$, $df=12$, $p<0.000$

<그림 23> 현재 자녀수에 따른 일가족 양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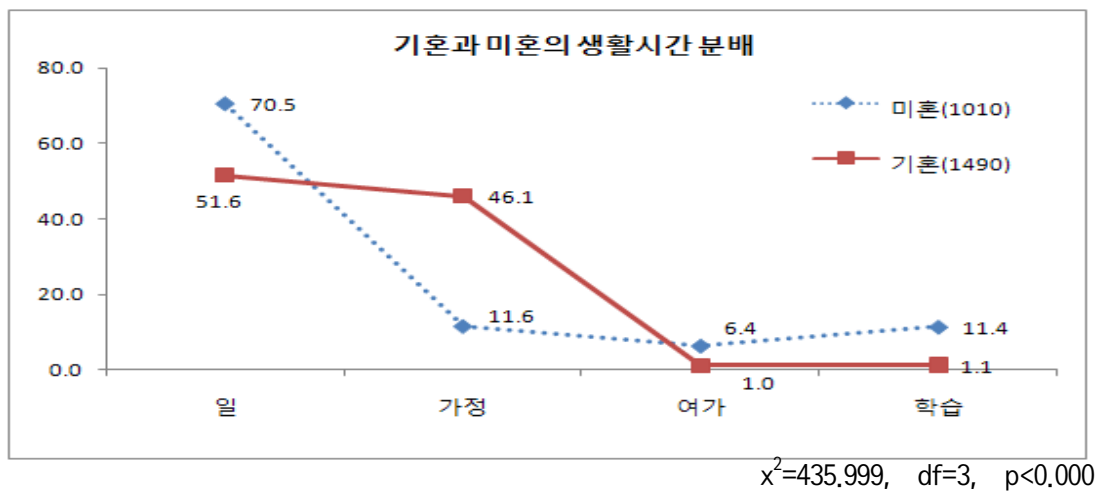
-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1명인 경우보다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음. 기혼남성의 경우 현재의 자녀수가 일가족양립 평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자녀양육에서 남성들의 부담과 참여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됨
- 기혼여성취업자의 경우,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할 때 힘든 점이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44.1%),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33.3%),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11.0%)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 남성취업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44.3%), '부부간 시간 부족'(16.8%),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15.8%) 순서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그림 24> 기혼자의 성별 일가족양립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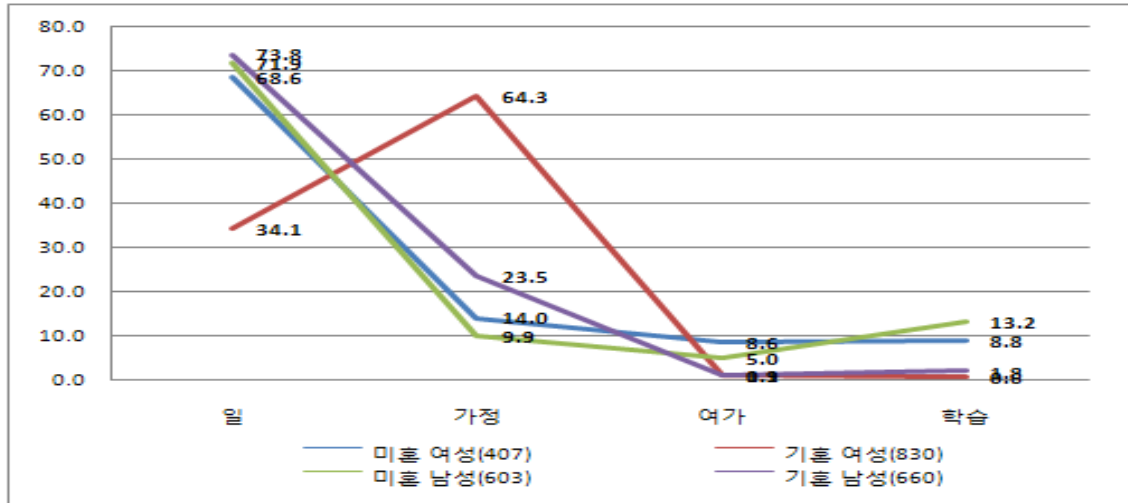
(2) 기혼의 일상생활 시간 분배

- 일상생활의 4가지 영역 [일 - 가정 - 여가 - 학습]에서 기혼남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 > 가정 > 학습 > 여가의 순서로 나타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51.6%,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46.1%,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1.1%, 여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1.0%로 나타남. 이같은 시간분배는 미혼남녀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남녀의 경우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70.5%로 압도적이며, 가정에 투여하는 시간은 기혼에 비해 매우 낮음(11.6%). 또한 미혼남녀는 상대적으로 여가(6.4%)와 학습(11.4%) 같은 자기계발에도 기혼남녀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기혼과 미혼의 일상생활시간 분배

-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64.3%,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비율이 34.1%로 가정에 시간을 투여하는 비율이 압도적임. 기혼남성의 경우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비율이 73.8%,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비율이 23.5%이며,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기계발과 휴식에 시간을 투여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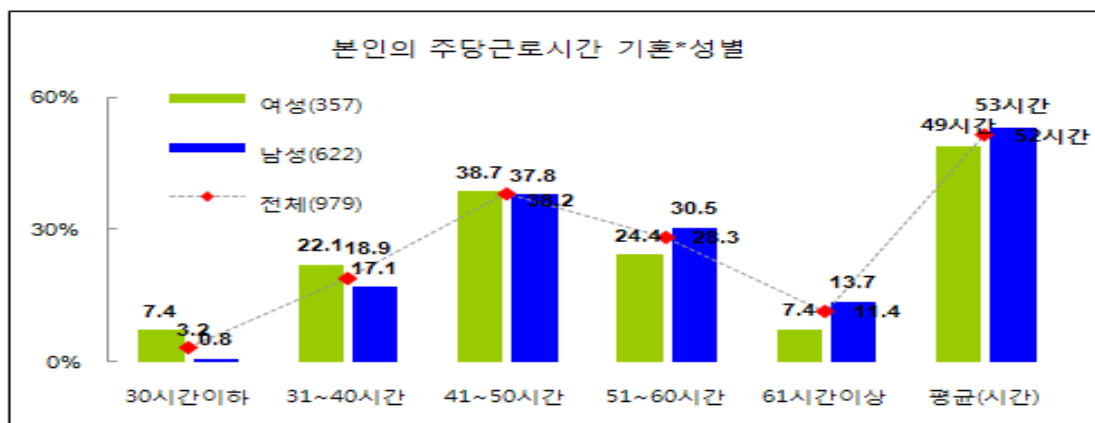


$\chi^2=745.080$, $df=9$, $p<0.000$

<그림 26> 결혼여부*성별 일상생활시간 분배

(3) 기혼남녀의 주당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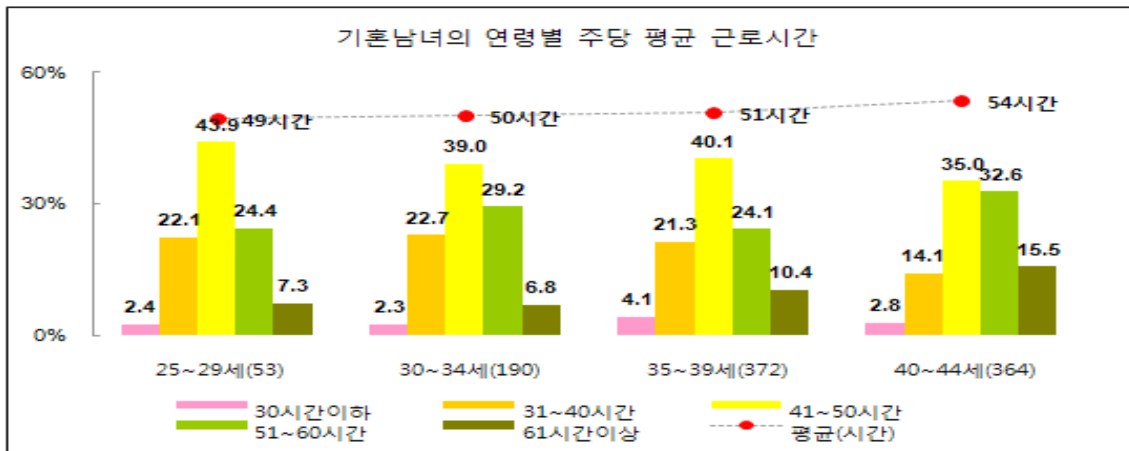
- 기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하루 평균 10.4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두드러짐, 미혼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1.4시간, 하루 평균 10.28시간으로 나타나 기혼보다 약간 짧지만 대체로 유사한 분포임
- 성별로는 기혼여성이 평균 49시간(일일 9.8시간), 기혼남성이 평균 53시간(일일 10.6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주당 평균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은 여성 29.5% 남성 17.9%에 불과함. 41~50시간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 38.7%, 남성 37.8%임, 특히, 51시간 이상 장시간근로 비율이 기혼남성의 경우 44.2%로 매우 높음(여성 31.8%)



<그림 27> 서울시 기혼남녀의 주당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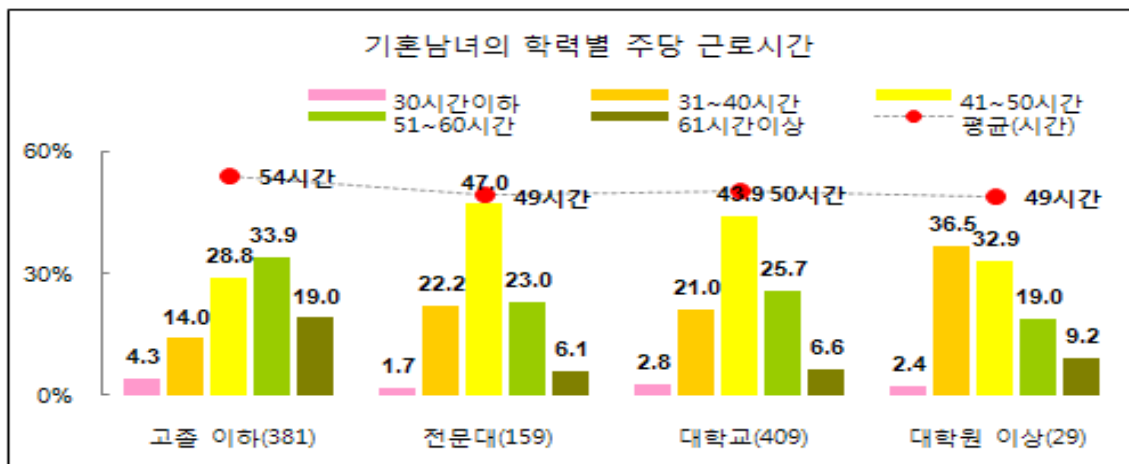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 특히, 35~39세의 10%이상, 40~44세의 15% 이상이 주당 평균 61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음. 주당 40시간 이상은 40~44세가 83.1%로 가

장 높고, 40세 미만은 약 75% 이내를 차지함. 즉, 대다수의 기혼남녀가 대체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40~44세 기혼이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8> 기혼남녀의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가장 길고,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은 평균근로시간이 유사함. 41시간 이상은 고졸이하가 81.7%로 가장 많고, 전문대 76.1%와 대학교 76.2%는 비슷한 반면 대학원 이상이 61.6%로 낮음. 또한 31~40시간 근로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36.5%)임. 40시간 이하의 근로비율은 대학원 이상 38.9%로 가장 높고, 대학교 23.8%, 전문대 23.9%, 고졸이하 18.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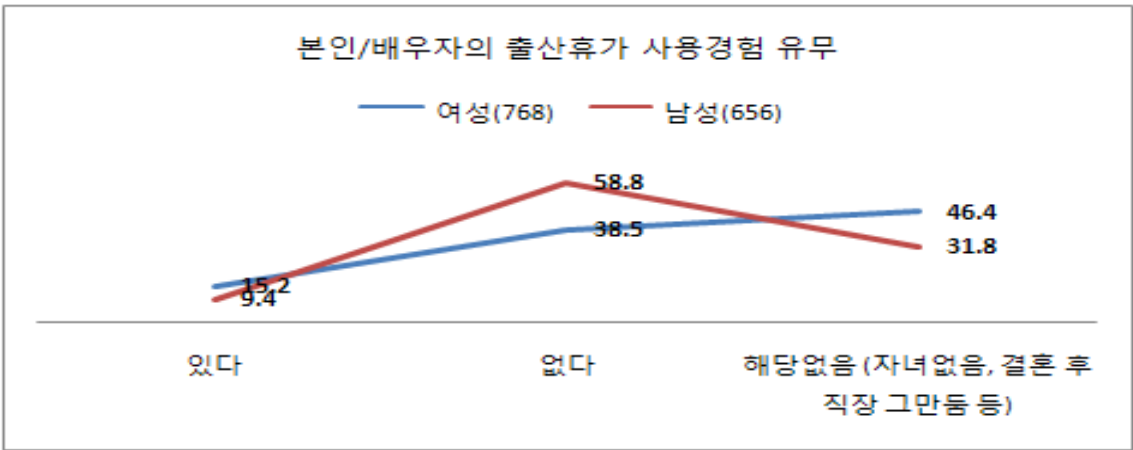
<그림 29> 서울시 기혼남녀의 학력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전체적으로는 월 평균소득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가장 김. 31~40시간 근로 비율은 2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41~50시간 근로 비율은 200만원 미만이 23.8%, 200~300만원 미만이 33.9%, 300~400만원 미만이 35.4%, 400만원 이상이 42.2%로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한편 주당 61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는 200~300만원에서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4)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가. 출산휴가

- 기혼남녀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2.5%, 없다는 비율은 47.8%, 해당없음은 39.7%로 출산휴가 사용경험 비율이 낮은 편임. 여성의 15.2%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9.4%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chi^2=26.998$, $df=1$, $p<0.000$

<그림 30> 본인/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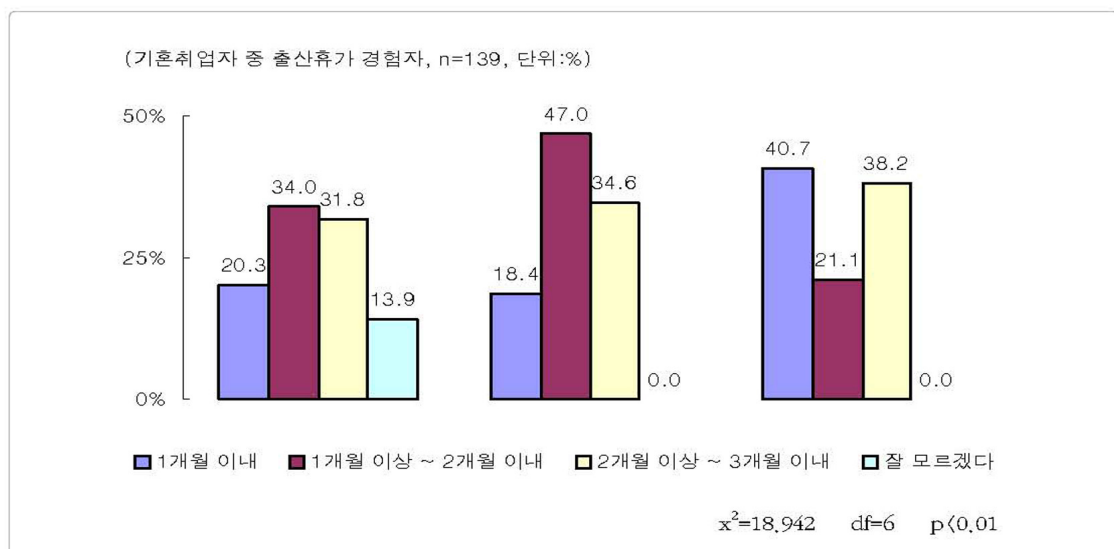
- 대학원 이상(32.2%)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해봤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16.5%), 대졸(14.8%), 고졸이하(7.6%)의 순서임.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의 16.6%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고위임원직(16.2%), 블루칼라(11.9%)의 순으로 나타남.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경험이 19.0%로 가장 높음

<표 9> 직업/학력별 본인/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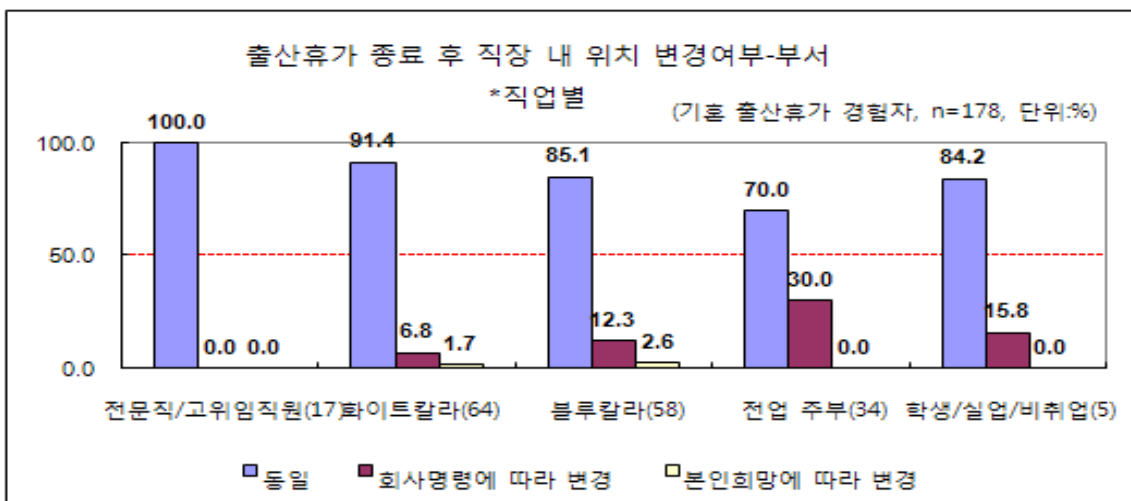
구분		Base for %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16.2	53.5	30.2
	화이트칼라	387	16.6	48.7	34.7
	블루칼라	485	11.9	55.6	32.5
	전업주부	394	8.7	35.3	56.0
	학생/실업/비취업	52	9.1	52.1	38.8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8.4	58.7	32.9
	상용근로자	563	19.0	47.2	33.7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4.9	64.8	30.3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43.3%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이상~3개월 이내가 34.6%, 1개월 이내가 19.6%로 나타남.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학력, 월소득, 직업, 고용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고졸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1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22.8%, 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7.8%, 2개월~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27.8%로 1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에서는 2~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39.1%, 대학원 이상에서는 2~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58.7%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이 긴 경향을 보여줌
- 월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2~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각각 49.4%와 49.0%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0~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1~2개월이내가 43.2%, 2~3개월 이내가 34.5%의 비율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1~2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51.5%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고위임원직 집단에서는 2~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50.2%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음
-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47.0%가 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34.6%가 2~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긴 기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했음. 상대적으로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40.7%가 1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해 출산 후 휴식에 있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그림 31> 고용상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 출산휴가를 경험한 기혼남녀가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동료들의 업무량 가장 부담감(17.7%), 직장복귀의 불투명성(12.7%), 업무가 중요해서 대체할 수 없는 점(10.2%), 승진상의 불이익(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음. 이는 출산휴가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므로 오히려 출산휴가 신청의 용이함이 출산휴가 사용으로 직결됨을 보여줌.
- 출산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불이익은 출산휴가 종료 후 직무와 근무부서 등의 변동으로도 나타남. 출산휴가 사용자의 7.2%가 회사명령에 따라 직무를 변경했다고 응답했으며, 12.6%가 회사명령에 따라 근무부서를 변경했다고 응답했음. 휴가 전의 직무와 근무부서의 보장은 출산휴가를 좀더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전문직/고위임원직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직장 내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반면 화이트 칼라의 6.8%, 블루칼라의 12.3%, 현재 전업주부의 30.0%, 학생/실업/비취업자의 15.8%가 근무부서의 변경을 경험했다고 응답. 이전의 직종을 알 수 없는 전업주부를 제외하더라도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출산휴가 종료 후 근무부서를 유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출산휴가의 사용율이 높아질 것임



$\chi^2=15.941$, $df=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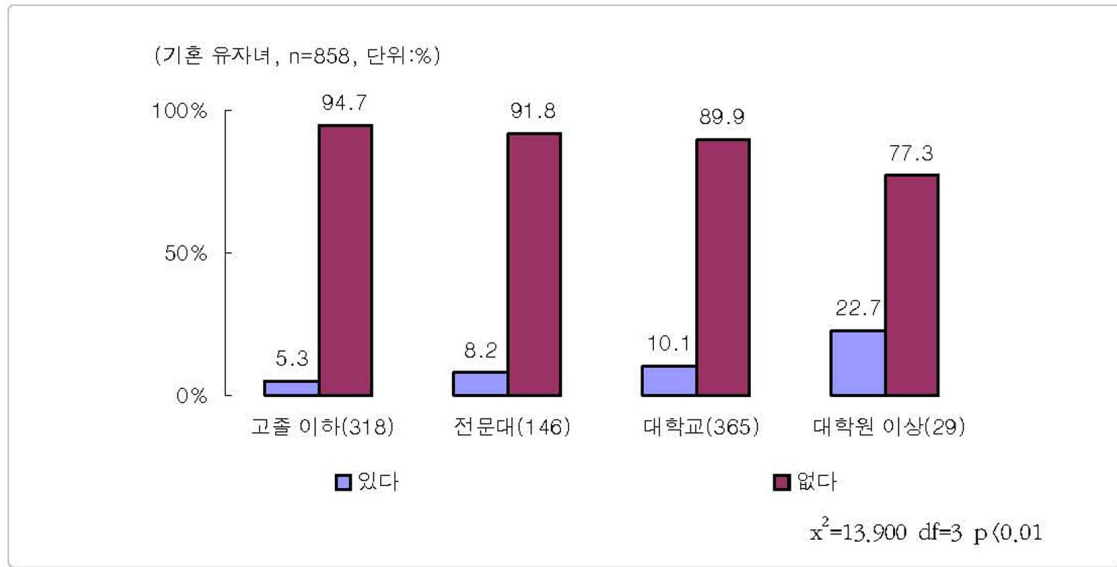
<그림 32> 출산휴가 종료 후 직장 내 근무부서 변경여부

나. 육아휴직 사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8.4%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91.6%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육아휴직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임. 출산휴가의 사용과 비교했을 때에도 현저히 낮음 수치임
- 본인 및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25~29세의 17.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0~34세의 11.7%, 35~39세의 7.1%, 40~44세의 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적어지는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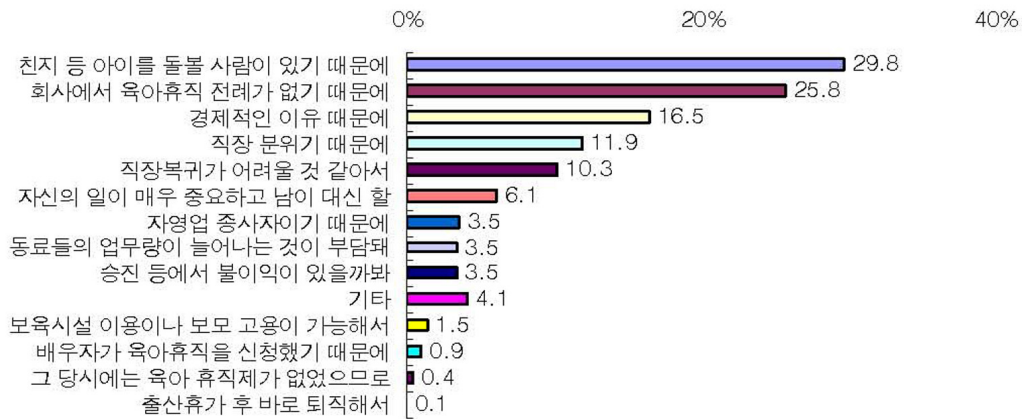
-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학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고졸이하의 5.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졸의 8.2%, 대졸의 10.1%, 대학원 이상의 22.7%가 본인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33> 유자녀 기혼들의 학력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직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전문직/고위임원직의 16.2%, 화이트칼라의 8.6%, 블루칼라의 7.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월 소득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달라짐.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3.0%, 200~300만원 미만 집단의 3.8%, 300~400만원 미만 집단의 4.5%, 400만원 이상 집단의 13.5%가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월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혼남녀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787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친지 등 아이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가 25.8%,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가 16.5%, '직장 분위기 때문에'가 11.9%,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가 10.3%인 것으로 나타남. 자신과 배우자 외에 육아를 담당할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육아휴직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문화의 부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등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이유로 나타남

(기혼 중 육아휴직 미사용자, n=787, 단위:%)



<그림 3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못한) 이유

-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31.4),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30.4%),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17.9%), ‘직장분위기 때문에’(15.0%)의 순이며, 200~300만원 미만층에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24.5%),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서’(24.1%),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22.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에서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에’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남녀 간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기혼여성의 경우 42.7%가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1.5%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라고 응답. 기혼남성의 경우 60.4%가 배우자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2.2%가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응답.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차이는 미혼남녀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미혼여성의 31.3%가 자녀를 돌보기에 적절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답했으며 15.0%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라고 응답. 반면 미혼남성의 38.0%가 배우자라고 답했으며 25.0%가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응답.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과 출산 및 육아휴직 이후 여성의 가지는 양육부담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경력을 단절하는 이유가 되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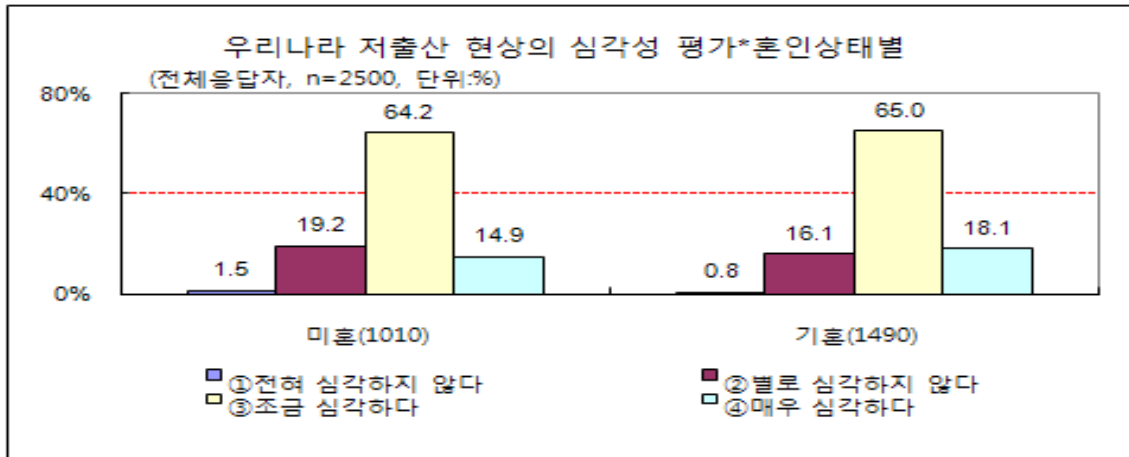
다. 직장 내 수유

- 기혼남녀 취업응답자 중 직장 내 수유가 가능한 직장종사자는 7.3%로 매우 낮음. 72.9%는 직장 내 수유가 가능하지 않은 직장종사자이고, 직장 내 수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9.8%에 달함. 미혼남녀의 경우 직장 내 수유가 가능한 직장종사자는 15.1%, 수유가 가능하지 않은 직장종사자는 53.2%로서 기혼남녀에 비해 직장수유 가능 종사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7. 서울시 기혼남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수요

(1)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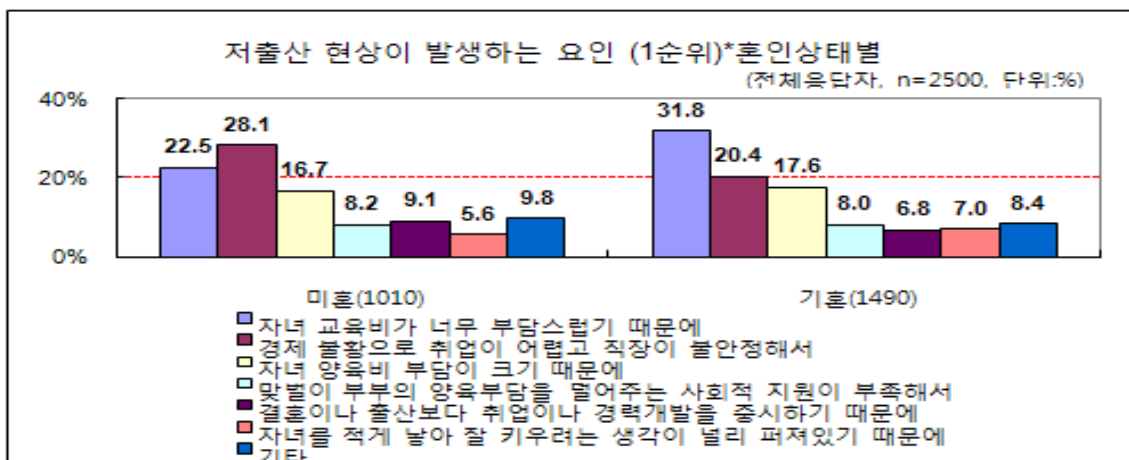
-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의 83.1%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함. 16.9%는 별로 혹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이같은 인식은 미혼남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chi^2=9.640$, $df=3$, $p<0.05$

<그림 35>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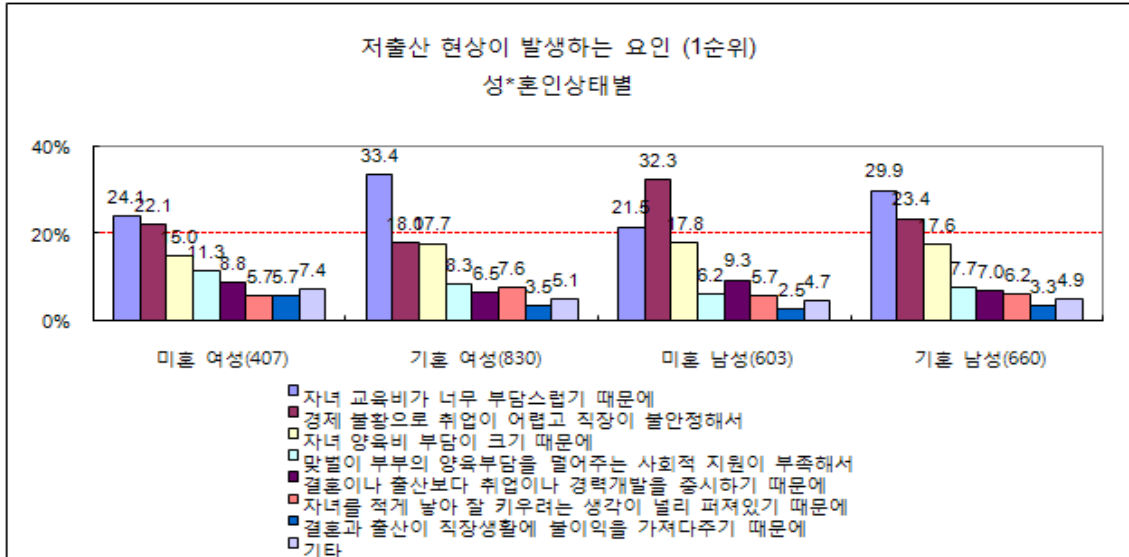
- 기혼남녀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31.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이 20.4%, '자녀 양육비 부담'이 17.6%를 차지함. 이에 비해 미혼남녀가 꼽은 저출산 원인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이 28.1%로 가장 높고, '자녀교육비 부담'이 22.5%, '자녀양육비 부담'이 16.7%로 나타남. 기혼과 미혼 모두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고 있으며 기혼은 미혼에 비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등 구체적인 양육의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함



$\chi^2=46.035$, $df=11$, $p<0.05$

<그림 36> 혼인상태별 저출산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 기혼여성은 '자녀교육비'(33.4%)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기혼남성 역시 '자녀교육비'(29.9%)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 반면 기혼남성(23.4%)은 기혼여성(17.7%)보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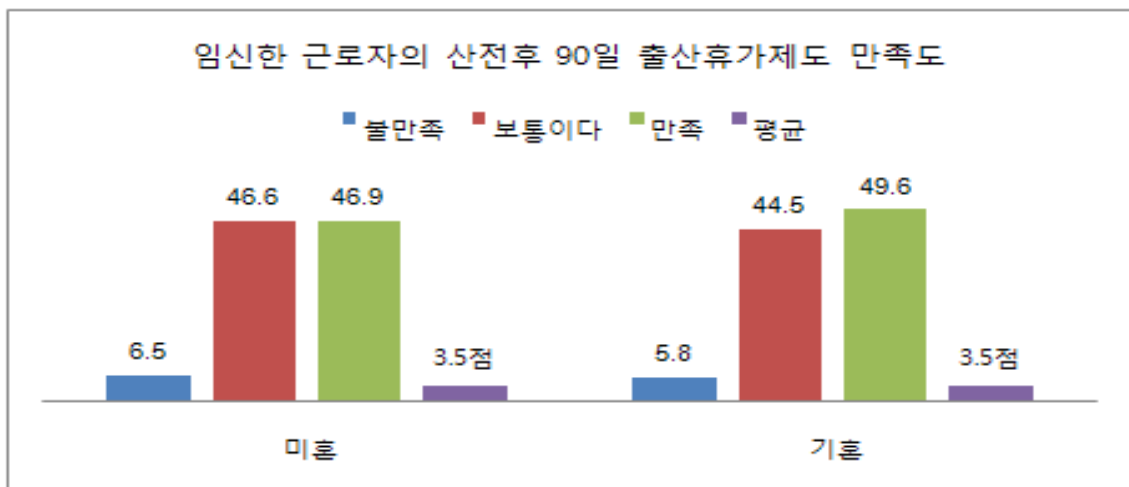
$\chi^2=89.026$, $df=33$, $p<0.05$

<그림 37> 성*혼인상태별 저출산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2)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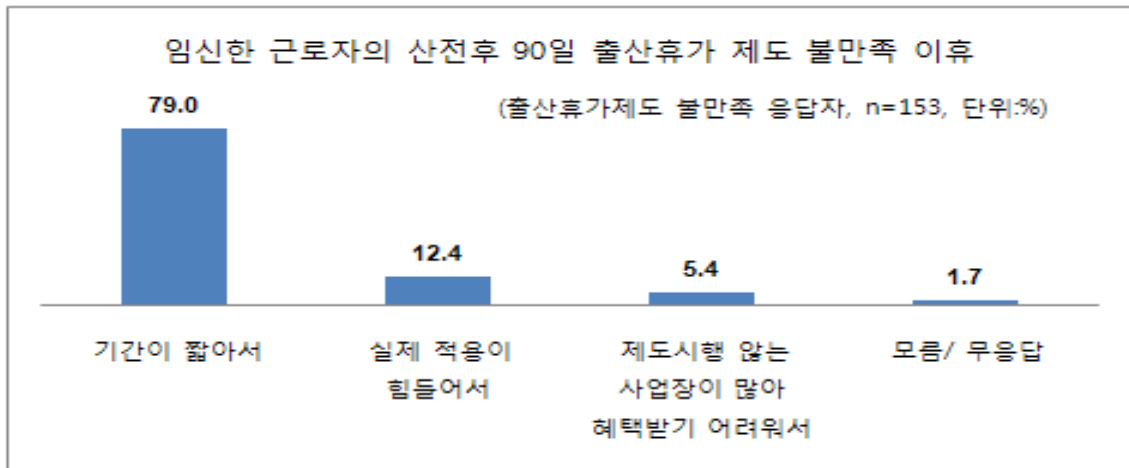
가. 출산휴가

- 현재 시행중인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혼의 절반정도(49.6%)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5.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그림 38>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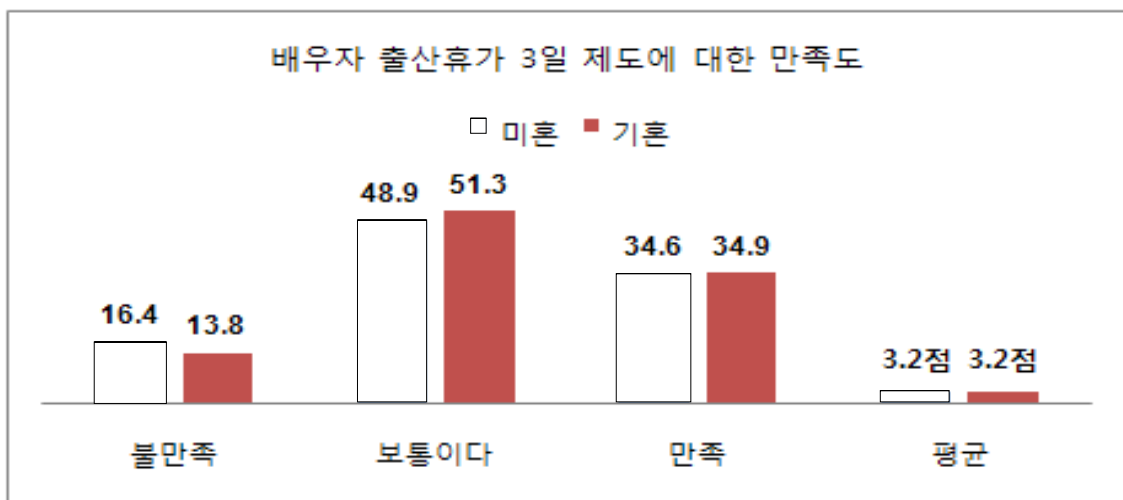
- 기혼남녀가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기간이 짧아서'가 79.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가 12.4%,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서'가 4.6% 순임. 기혼여성의 78.0%가 '기간이 짧아서', 10.7%가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라고 답했으며, 기혼남성의 80.7%가 '기간이 짧아서', 15.0%가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라고 답했음



<그림 39>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나. 배우자 출산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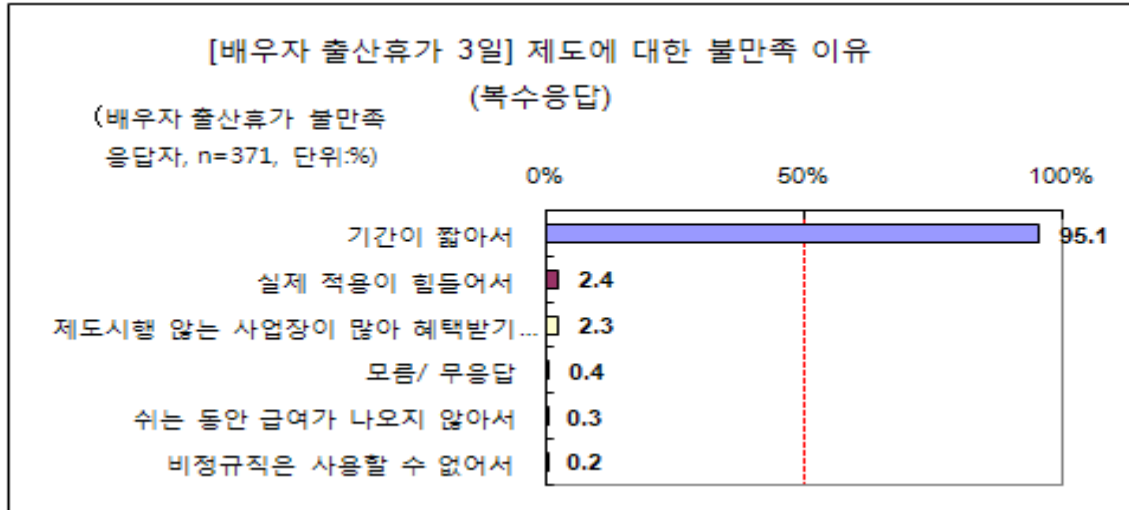
- 기혼남녀의 34.9%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51.9%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보통'에 해당함



<그림 4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여성이 3.2점, 기혼남성이 3.3점, 미혼여성이 3.1점, 미혼남성이 3.2점으로 전반적으로 미혼에 비해 기혼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혼남녀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기간이 짧아서'가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2.4%,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2.3%, '쉬는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0.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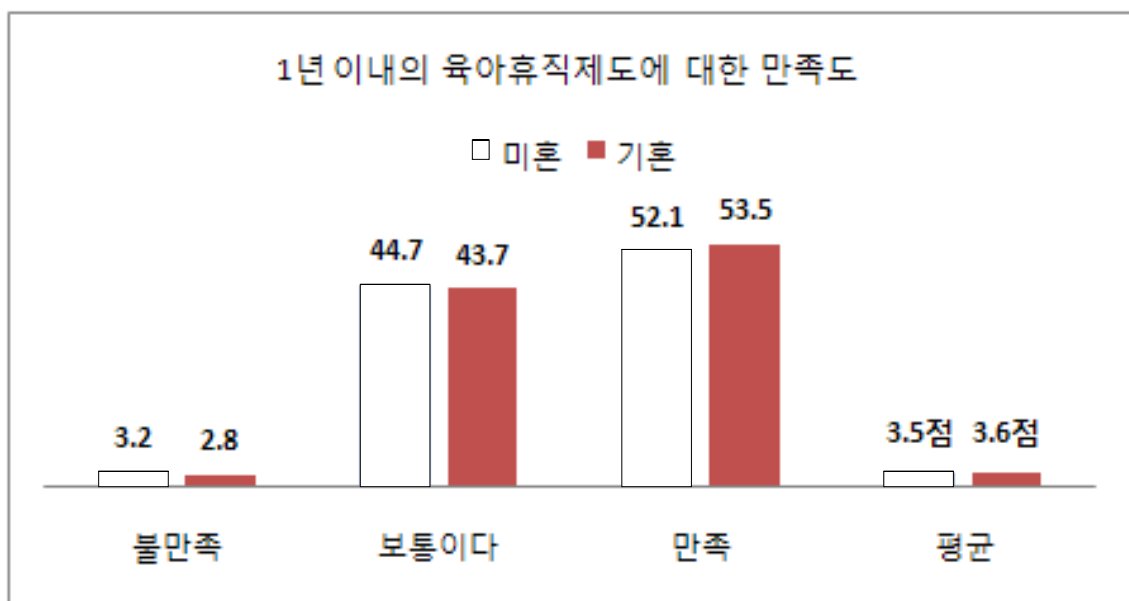


$\chi^2=89.026$, $df=33$, $p<0.05$

<그림 4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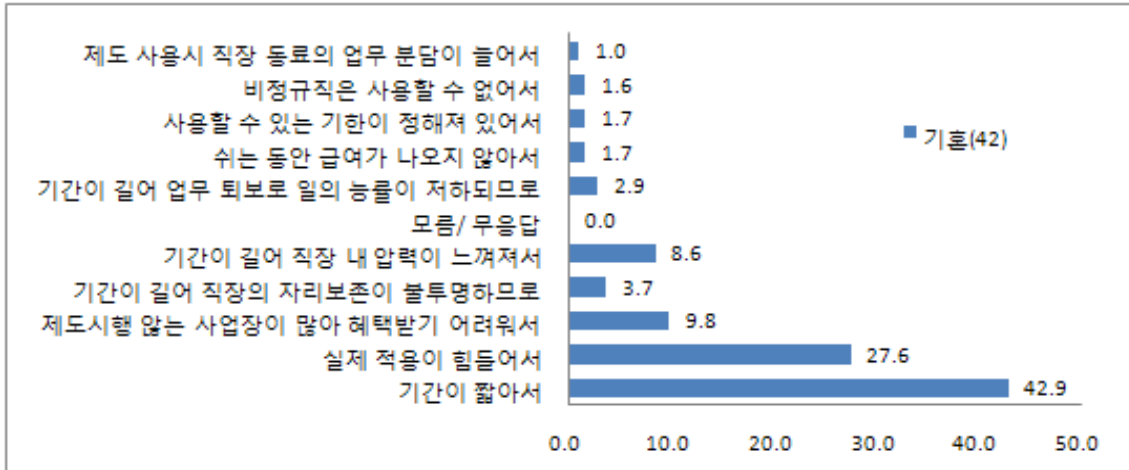
다. 육아휴직제도 만족도

- 기혼남녀의 53.5%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43.7%는 보통이라고 답해 기혼남녀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나타남. 특히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2.8%로 낮음



<그림 42>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 육아휴직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아서’가 42.9%로 가장 높음. 이외에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27.6%),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9.8%), ‘기간이 길어 직장 내 압력이 느껴져서’(8.6%), ‘기간이 길어 직장의 자리보존이 불투명하므로’(3.7%) 순으로 조사됨



<그림 43> 기혼남녀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8. 맺음말 : 정책함의

-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의 83.1%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70% 이상) 꼽았음. 또한 기혼남녀는 추가로 자녀를 갖고 싶은 시기로 '나이 들기 전'과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유지될 때'를 들고 있음. 기혼남녀가 출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혼남녀의 연령과 경제적 조건, 현재 자녀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취약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복지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과 구직난 해소, 사회적 안전망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2.01명으로 성, 현재자녀수, 학력, 연령 등에 따라 희망자녀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자녀 희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기혼남녀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또한 기혼남녀의 70% 이상이 자녀 2명 이상에 전업주부 혹은 부인의 시간제 근로형태의 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일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도 낮지 않으므로, 기존의 남성생계부양형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회제도들이 시간제 맞벌이 부부, 전일제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기혼남녀는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항목에서 일관되게 5~10%p. 정도의 인식격차를 보이며 기혼여성에 비해 기혼남성의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게 나타남.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성별 인식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책홍보와 제도이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남녀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수유 등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답하고 있음.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제 모두 기간이 너무 짧거나 실제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1년 이내 육아휴직이 너무 길어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출산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의 부족, 직장 내 불이익 방지 등이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함